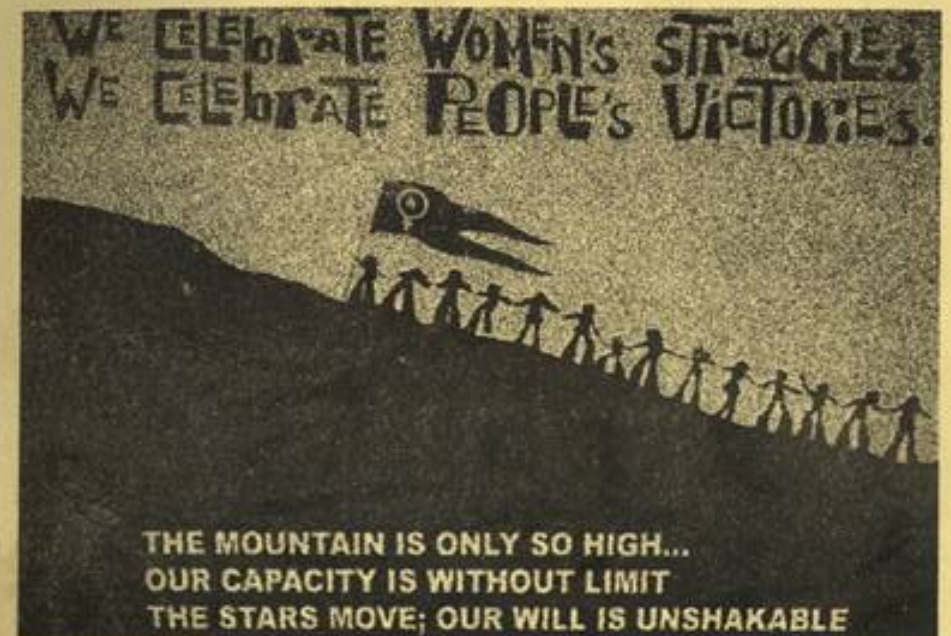


WICCA



www.cafe.daum.net/wicca/

차 례

1

의학계열 여성 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위카의 출발	4
위카가 지난 학기 중에 3한 일과 그 평가	9
위카의 소식지 발행을 축하하며...	11

2

여성의 눈으로 과학을 보라!	16
여성주의적 의료를 꿈꾸며	24
뒤집어 보기!	30
인턴의 왕수다	35

▲ 쉬어가는 페이지 / 가부장사상충이 돌고 있다	38
----------------------------------	----

3

눈을 크게 뜨고 봐!	64
우리가 Kim's plan에 대해 알고 싶은 한두 가지 것들	42
롯데 호텔 여성 노동자들의 분노	45
기활을 다녀와서..	49
의약분업과 의대 사회의 일상 문화 말하기?	54
눈을 크게 뜨고 봐!	64

1

의학계열 여성 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위카의 출발
위카가 지난 학기 중에 3한 일과 그 평가
위카의 소식지 발행을 축하하며...

의학계열 여성 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위기의 출발

wicca

1. 들어가며

고교 시절 여학생들은(남학생들도)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성적이 좋은 학생은 '수학'이나 '물리'를 잘 하고 좋아해야 하며 반대로 사회 과목, 어학은 싫어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학, 물리는 이성적, 논리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남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자연계 과목을 좋아하는 여학생들은 '남자들이 주로 하는 어려운 공부'를 한다는 자부심을 은근히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사회 어느 분야에서건 여성을 기피하는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알게 된 현실적인 여학생들은 그나마 '여성들도 하는 일'로 인식이 되고 그래도 밥벌이를 기대할 수 있는 의학계열로 눈을 돌리게 된다.¹⁾ 그런데 의대에 들어온 여학생들에게는 희망찬 미래만이 기다릴까? 졸업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의대 여학생의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엔 얼핏 상당수가 별 볼만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배가 여자 후배에게 "여자들끼리 경쟁해야 하니까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반응인 것이지 여자들끼리 경쟁해야 한다는 전제에까지 동의할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휴에서 4학년 여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맘에 안 드는 현실이지만 일단 살아

1) 물론 이른바 적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뜻은 아니다.

야지."하는 반응을 보인다. 즉 유독 여학생들에게 불리한 현실을 스스로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몸글

이전에도 연세 의대 내에서 의대 사회 안의 성차별주의에 문제 제기하는 흐름들이 있어왔다. 9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의대 여학생회는 임상 실습 중 여학생들은 치마만을 입어야 하는 관행에 문제를 삼아 이를 시정해내는 등 여러 모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90년대 초까지와는 달리 의대, 의예과 여학생회는 점차 친목 도모나 병원 봉사 등을 주된 활동으로 삼아 형식적으로 조직을 유지하다가 96년 소멸하고 말았다. 이들은 자생적인 흐름으로 어느 정도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각과 여학생회들을 중심으로 한 여학생 운동의 연장선상에 서 있으리라 조심스럽게 추측한다.

여기서 의대 사회의 성모순에 반기를 들었던 때의 여학생회를 감히 평가해 보자면, 의대의 구체적 현실에 기반한 독자적 흐름이라는 것, 보수적이고 위계적인 의대 사회 안에서 과감히 문제제기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을 높이 살 수 있다.²⁾ 반면 평등주의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평등주의란 특정 집단 내의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에만 천착하여 그것을 타파하려는 경향이다. 즉, 여성도 남성과 같이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평등주의에 의해서만 의대, 의사 사회의 성모순을 바라보면, 의학이 갖는 성적 편향과 그것이 재생산하는 성적 편견, 의료계 내부의 성별에 기반한 위계질서, 여성들간의 계급적 차이에 의해 중층 결집된 남한 사회 성모순과의 관련성 등의 측면들을 간과하기 쉽게 된다. 그러나 이런 한계는 어쩔 수 없던 점이었다. 당시 전체 대학 사회에서의 여학생 운동들은 여성으로서 전체 운동인 민족민주 운동에 복무하기 위해 여학생들을 조직화하고 '봉건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잔재'인 성차별주의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두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90년대 중반 이후 대학 사회 내에서는 민족/계급의 거대 담론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상의 성모순을 이야기하는 여성 운동의 흐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성과는 단순히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이 되어 온 여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는 데에만 있지 않다. 이들은 운동의 방식에서도 기존의

2) 이후 여학생회가 형식적으로 명맥을 이어갔을 때에도 교수들이 그 존재를 의식하여 그나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학생 운동이 갖지 못했던 신선한 문화적 시도들을 하였으며 학생회 중심의 학생 사회, 학생 운동을 비판하면서 자발성에 의거하고 대표성에 집착하지 않는 자치적 흐름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³⁾

연세대 내에서는 총여학생회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와 각 단대별, 주제별(문화, 언론, 정보)로 여성 모임이나 위원회등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노력들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대학 내의 성폭력 문제나 신규여성실업 문제 등이 이슈화되었다. 그러나 의대 사회는 그 고립적인 특성상 이런 움직임에서의 무풍지대로 오랫동안 남아 있어 왔다. 그것은 의대와 병원 조직과의 관련하에서 오는 특수성이 워낙 강하게 작용한 탓이기도 했다. 의대 사회의 성모순은 전체 대학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분과 사회적으로 의사가 갖는 위치와 의사 사회의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로부터 특수하게 구성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⁴⁾ 그러므로 의대 안의 여성 운동의 내용은 본교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 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은 어떠한 형태가 적당한가? 위키는 일단 여성을 주제로 한 자치 단체로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많은 고민이 따랐다. 상당수 학우들이 부당하게 전제하는 바를 좇아, 이른바 '전체 여학우'들의 지지와 이름을 얻어 여학생회를 꾸리는 것이 좋을지도 고민했다. 여학생회는 상당한 공간적, 물질적 지원 하에 다양한 형태의 행사들을 기획하고 학교측과도 협상할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남학생회는 없는데 왜 여학생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여학생들은 '일반적인 의대학우들'이라는 보편성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특수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즉 여학생회는 여성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여학생회는 대표성을 띠어야 하는 조직이다. 되도록 많은 여학우들의 '한 표'를 통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과연 성염색체가 XX라고 해서 곧바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깨닫고 다른 여성들과 연대감을 갖는 여성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이 글을 읽는 누구라도 경험적으로나마 이 질문에 '아니다'라는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 다수가 여성 문제에 무관심한 상태에서 당선된 여학생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한 여학생회의 활동은 둘 중 하나이다. 우선은 급진적인 소수 학생회 일꾼들이 다수 여학생들을 '대신하여' 활동해 주는 것이다. 또는 비정치적인 복지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잃게 된다. 권력은 아래로부터 나온 것일 때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선거 과정을 통해 학우들과 문제 의식을 나

3) 이러한 과정에서 오류가 없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모든 대안적인 시도들이 그러하듯이 현재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진행 중인 작업이다. 더구나 지역, 학교에 따라 다양한 조직 형태를 보이고 있어 쉽게 일반화시키기엔 무리가 따른다.

4) '나뉜다'라는 표현은 일부러 쓰지 않았다.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눌 수 있고 당선되면 여학생회 활동을 통해 문제 의식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학우들이 얼마나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어떤 점에 주목하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이 문제는 제대로 논의된 역사가 없다. 극소수 그룹에 의해 명맥을 이어오던 이과대 여학생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무리해서 치르는 선거가 효과와 유용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키의 정식 명칭은 '의대 여성 모임 위키'이다. 여기서 '여학생 모임'이 아닌 '여성 모임'이라는 데 주목하자. 여기에 쓰인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자각하여 의식화해 가는 주체'이다. 또 누군가는 "인준도 받지 않은 채로..."라거나 "누가 너희에게 권한을 주었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떻게 뜻이 맞는 사람들이 공통의 주제로 주위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는데 권력이, 인준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자치단체는 이론상 인준받은 동아리가 아닐 수 있다. 학회일 수 있고 위원회일 수도 있다. 문제는 그 단체가 '머리수'에 의해 위상을 갖고, 거기서 제기하는 문제 의식과 관련 없는 또 다른 '머리수'에 의해서야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고 보는 부당한 진제이다. 중요한 것은 그 단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점이고 그것의 위상은 속한 공간 내에서 어떻게 활동을 벌이느냐에 달린 것이다. 만약 중요한 사안이라면 학생 대표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동등한 자격으로 논의 테이블을 꾸밀 수도 있다. 우리가 '일반 여학우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 학우'가 학생 대표체와 동등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면 과연 대학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3. 나오며...

앞서 언급했듯이 의대 내 여성 문제에 대해 평등주의적 관점만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의사 사회의 성차별적 현실과는 다르게 사회에서 여의사란 '성공한 전문직 여성'이며 '다른 여성'의 눈에도 그렇게 비치기 때문이다. 물론 내부들 들여다보면 여학생들을 뽑지 않는 과들도 많고 들어갈 수 있는 과들도 여학생들이 서로 경쟁해야 하는 '좁은 문'이라는 것을 알 터이다. 그러나 만일 의대 사회 내에서, 의사 사회 내에서 남자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만으로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의학이 어떤 면에서 성적인 편견을 전제, 재생산하며 남성을 인간의 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는 한, 성별에 기반한 의료계 내부의 위계 질서가 지속되는 한⁵⁾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의사란 '명예남성'

5) 쉽게, 남성적 이미지의 의사/여성으로 표현되는 간호사... 혹은 이런 식의 구분이며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일들의 가치가 더 낮게 매겨지는 관행이다. 병원 내의 모습은 놀랍게도 가부

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⁶⁾ 의대 여학생들의 비율은 끊임없이 늘고 있다. 그러나 여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학, 의료에 내포된 가부장성이 제거되고 여성 친화적인 병원 조직과 의료의 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여의사 집단이 남한 사회 성차별주의를 교묘히 은폐하는 '상징 정책'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의학 계열 여학생 운동은 보건의료 여성운동이 되어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병은 병원권이 만들지 않으며 외상은 흉기가 만들지 않는다. 사회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집단에 대한 건강 문제를 온전히 이야기할 수는 없다. 여성 건강은 성차별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될 수 없다. 우리는 의대 내의 여학생들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재구성함과 동시에 보건의료인으로서 남한 사회의 여성 운동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한다. 다른 학교 여성 위원회나 여성학회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아직 번역된 자료가 적고 의료 현장의 선배들과의 연계없이 활동을 벌여나가기 곤란하지만 언젠가는 의료계 내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다.

장적 가족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명령, 지시하는 주체인 아버지(의사), 따르고 돌보는 어머니(간호사), 부모의 말을 절대시해야 하는 자녀(한자)... 이런 모습들이 떠오른다면 지나친 생각인가.

6) 의료 조직 내부에는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 다수가 여성인 간호사, 그밖의 수많은 병원 노동자 등이 있다.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는 아무리 상호 협조해야 할 독자적인 분야이며 분업 관계에 있을지라도 '여성의 일=지위가 낮은 일'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이러한 의료 조직 내의 위계화도 여성의 문제이다.

위카가 지난 학기 중에 한 일과 그 평가

wicca

지난 1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예과생 몇몇과 여성학 세미나를 하면서부터 모임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 그 후 세미나를 했던 예과생들은 신입생 교양학교를 준비하는 데 참여하였고 의대여성모임(준)이라는 명의를 사용하며 위카의 방향성과 전망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 왔다.

그러다가 2학년 사물함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부터 의대 학우 대중 사이에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학생부와 총대단의 관심과 무관심에 만지를 걸며 의대 내 소수자의 존재를 알리고 학우들의 자발성을 촉구하며 동시에 자치를 개념화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해결책 안 되는 문제였다. 위카는 복지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정치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사물함이라는 '물건'의 배분, 배정 문제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배려 없음과 만연해 있는 관료주의와 관성, 그리고 학우들의 비자발성과, 같은 성이면 쉽게 동일화시켜 사고하는 성적 고정 관념¹⁾ 등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의미가 작지 않은 시도였음에도 학우들의 활발한 논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우선 부딪힌 어려움은 일부의 이해 부족과 핏포였다. 단지 전학년의 사물함을 교체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는지, 선전을 방해하고²⁾ 동등한 협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난점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리고

1) 같은 여학생이라도 지하실이 어두워서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강의실과 가깝기도 해서 개의치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남학생도 마찬가지다.

2) 자료가 썩기거나 지저분하게 가뭄이 된 것은 물론, 논의가 거의 끝나갈 때에도 자료가 '정중

설문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학생회를 포함한 삼자 테이블에서 논의한 후, 너무 안일하게 움직였던 것이 문제였다. 2학년의 결코 한가하지 않은 시험 일정을 고려한다면 1학기 내내 논의하더라도 학우들의 관심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의견 공모와 다른 일상의 문제들도 끌어낸 선전 등을 초반부터 이어나갔어야 했다. 그때 위카의 입장글이 광혜학보에 실리기만을 기다린 것은 큰 실수였다. 4월 하반기에 서야 선전전을 시작한 뒤 표결에 불일 것을 제안하는 학우들의 연서를 모으고 5월 27일 표결에 불이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27일 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29일로 미루어졌다. 29일 투표 결과는 재분배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었다.³⁾ 우리는 일상의 문제 해결이 얼마나 어려우며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선전이 얼마나 어려운가, 또 꾸준하고 활발한 선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또 해결 과정은 오래 끌면 안 된다는 것도.

위의 문제제기를 한 거의 비슷한 시기부터 위카에서는 2-3주에 한 번 꼴로 계속적인 OPEN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학기 중 세미나의 주제는 가족-여성의 몸-남성중심적 성문화-성폭력이었다. 세미나 참여율은 저조했지만 위카의 문제의식을 다듬고 세미나 일정과 내용을 선전하며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기회는 되었다. 아무리 과 학우의 제안이더라도, 세미나의 내용이 부담없게 보일지라도 실제로 세미나에 학우들이 참여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러므로 실제 세미나 준비도 중요하지만 위카의 고민과 입장을 집약한 다양한 방식의 사전 선전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방학 중에는 '과학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남성의 과학을 넘어서(창비)'라는 책을 가지고 99, 98학번 학우들과 세미나를 하였다. 앞으로도 방학 중에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학 교실이나 주제가 있는 공개 세미나를 열 것을 구상 중이다.

그리고 외부의 사안에 관한 선전도 이루어졌다. 베이데이 자보 선전과 반성폭력 학적 제정에 관한 화상실 자보와 낙서판, 그리고 반성폭력 팩 판매 등이 이루어졌다. 아마도 당분간은 선전 활동이 주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다만 자보 선전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고 다른 다양한 방식들을 찾아보고 통신 공간을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의대 안에서 영화제나 강연을 주최하거나 기획전을 꾸미는 것도 해 볼만한 작업이라고 본다. 그러나 뭐다 뭐다 해도 위카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자의 재생산이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히' 떼어져 있거나 아예 실종이 되곤 했었다. 이러한 현상은 또 다른 언더 학회인 매스의 자보가 철거되거나 찢겨진 사건과 1차 파업시 다른 입장을 가진 그룹의 게시물을 뜯어낸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주류에서 멀어지는 것, 자신과 다른 입장을 당당히 밝히는 것, 이른바 계급 서열이 낮은 '일반'이 '건방지게 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의대 안의 파시즘적 문화와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케이스라 하겠다.

3) 투표 결과는 재분배 찬성46표 반대50표였다.

위카의 소식지 발행을 축하하며...

경희한의 성평등위원회 김지은 영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한의 성평등위원회 달해입니다. 먼저 연대의대 위카의 소식지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성평등이란 용어가 생소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럼 먼저 성평등의 의미에 대해 말해볼까요?

1. 성평등위원회란 무엇인가

평등의 사전적 의미는 '특권의 철폐와 일체 기회의 균등'이다. 즉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요인에 의해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활동영역을 제약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말하는 성평등 역시 성에 의한 차별이나 억압, 소외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의 한의계는 성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한의계란 좁게는 재학생, 교직원, 한의대 환경(문화, 학술, 교육분야)을 의미하고 넓게는 한의학과 한의학을 둘러싼 제반환경 모두를 지칭한다. - 신문 '달해' 창간호

이렇게 성평등위원회는 한의대의 성평등 정착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위원회는 기존 여학생회와는 달리 성문제의 다른 한 축인 남학생도 그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회 체계처럼 해마다 바뀌고 연계성, 전문

성이 떨어지는 체계에서 지속적, 전문적으로 '성평등을 위한' 일을 하려는,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전문기구의 역할을 합니다.

2. 한의대에 정말로 성문제가 있습니까?

성문제라는 것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성폭력, 성폭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성과 관련하여 불쾌한 일을 겪었다면 이것이 바로 성문제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선 무난히 아무일도 아닌 듯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도 그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학생이 많이 들어오면 한의대 망한다.(실제로 한의대의 여학생 수는 지금까지 20%를 넘지 않았는데, 00학번의 경우 50%가량이 여학생이었다.)" "한의대 여학생 비율이 20% 이니까 5년에 한번씩은 여자 학생회장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그 실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남자가 돼서 그깟일에 힘들어하고 그러냐? 힘쓰는 일인데 당연히 남자가 해야 되지 않냐?" 등입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당사자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부담을 주어, 수동적인 여학생, 힘들어도 희생하는 남학생의 상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교수님에 의해 생겨나는 언어성폭력, "여자는 집에서 살림 잘 하면 돼. 남자는 정력이 좋아야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등의 말이나 여학생이 소수이기 때문에 남학생 위주의 예를 드는 것 - "너희들 술 퍼먹고 게 집질하면 정을 낭비하게 된다. (순간 교실에 있던 여학생은 모두 증발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의 '너희들' 안에는 여학생은 빠져 있군요.)" - 등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의대 내의 성문제들은 그 동안 제대로 문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호소할 통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가해자와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든가 자기가 말한다고 해서 뭐가 변할까 하는 생각들 때문에, 또 자신의 방패막이 될만한 든든한 백이 없었기에 그것들을 말하기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통로 마련을 위해 한달에 한번씩 '달해'라는 성평등위원회 신문을 내고 있습니다. 신문은 한의대 내의 성문제를 학우들에게 알리고 문제 해결을 모색하며, 학우들의 생각을 담아내기 위한 통로이지요. 또한 일주일에 한번씩, 새내기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또 축제기간 중에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홍보와 서명운동, 군가산제 폐지를 위한 홍보와 퍼포먼스 등을 다른 단체와 연계하여 진행시키기도 했지요.

3.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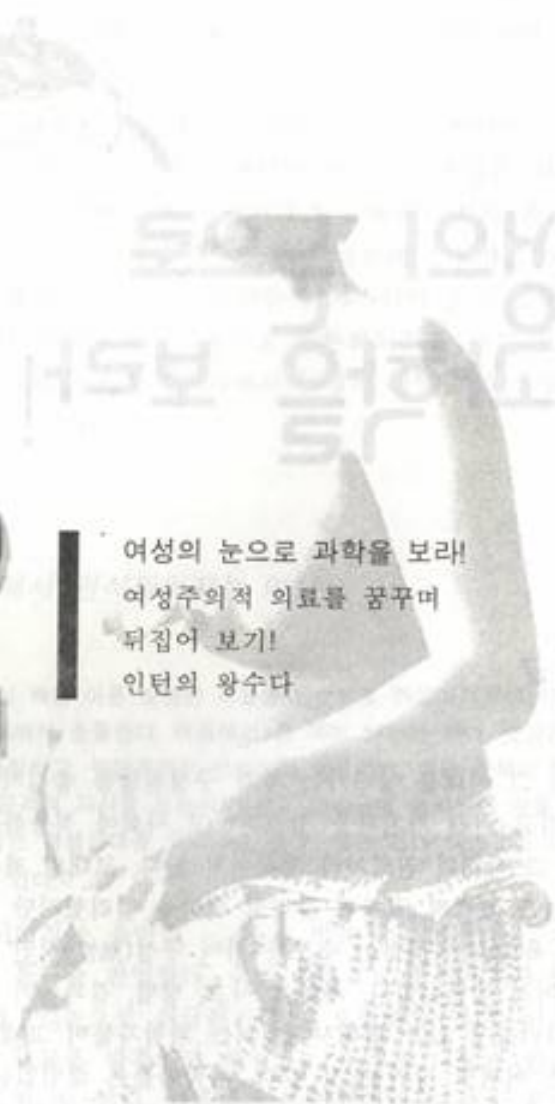
앞으로 우리가 하려는 일들은 위에서 이야기한 성폭력의 문제나 사회의 제반 성문제에 대하여 운동하는 것 외에도 더 있습니다. 우리의 전공과 관련된 '한의학, 한방의료, 한의사' 내부의 성평등을 정착시킴으로써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통 사회에서 유교 중의 가부장적 인습이 '의학'이라는 이름 아래 한의계 사람들에게 정당화되고 교육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달해는 이런 한의학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이러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한의학 내부의 문제점, 한방의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고쳐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계의 '성평등의 문제'는 양방의료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의사의 고용과 진급에 있어서의 성차별이나, 진료부에 '남성' 보호자가 적혀 있어야 하는 현실, 여성 환자의 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병원 환경, 권위적인 의사의 모습, 성차별을 의학이라는 이름 하에 정당화하는 과학의 논리를 다시 생각해보기 등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이런 의료계 내의 문제들을 위카와 함께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 잘못된 다트게임 / 홍승우 작

2

여성의 눈으로 과학을 보라
여성주의적 의료를 꿈꾸며
뒤집어 보기!
인턴의 왕수다



여성의 눈으로 과학을 보라!



Mozzi

들어가는 글

어느 시대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을 응집시키는 가치관이 존재하여 왔다. 그리고 이런 가치관을 정교화하고 사회에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집단들이 그 시대의 권력자라 칭하여져 왔다. 고대의 제사장들, 중세의 교회가 그렇다. 그들은 세속적 권력과 물질적 쾌락을 멀리했지만 당대 권력의 정점을 이루었고 성적 욕망을 억제하는 수도를 하여 무성(無性)적인 존재인 양했지만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집단이었다. 과학적 사고, 방법, 결과들이 우리의 감각과 사고의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과학자들이 고대의 제사장적 위치를 가지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다. 과학자들은 끊임없는 이성적 반성과 엄밀한 실험적 방법으로 발전하는 과학을 인간의 원초적인 두려움과 상상에 근거한 인식체계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재 사회 구성원들에게 과학은 가히 미지의 세계이고(과학을 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과학이 가지는 위력 앞에서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마저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는 거의 현대의 종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종교가 그러했듯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가치를 매기고 평가하는 것은 이제 과학자들을 뭉치 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은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고전적이고 다분히 도전적인 질문을 여기서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모

든 나라들이 과학입국의 기치를 내걸고 전진하는 지금 과학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단순히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위치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그것은 과학의 미명하에 자아와 자신과는 다른 타자를 구분짓고 그것을 명명하며 평가하고 지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이다.

과학은 '여성'을 어떻게 보는가? 이 질문은 두가지 전제를 근거로 하고 있을 때만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과학의 세계에서 여성은 '타자화', '대상화'되어 있다는 것과 과학을 위해 조직된 사회체제 속에서 여성의 존재가 '주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서구에서는 이런 현상들에 주목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런 성적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사실들이 주목되지도 공론화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거칠게나마 과학 내용과 형식속에서의 성적 편향을 짚어 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몸글 1 - 과학에서 인식되어지는 여성

흔히 낯선 상태에서 짝을 이룬 숫양은 서로를 암컷으로 취급하기 시작하여 그 가운데 하나가 암양으로 행동할 때까지 충돌한다. 싸움에서 진 쪽이 암양이 된다. 숫양은 서로 과시하면서 맞서며, 서로간에 발길질하고, 뛰어올라서 위험하고 충돌하여, 어느 한쪽이 뒤엎어져 곁어차기, 과시, 그리고 큰놈이 공격적 과시를 표현하지 않고 이따금씩 올라타는 것을 수용할 때까지 계속된다. 싸움질의 핵심은 경쟁상대를 죽이거나, 불구, 또는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 쪽을 암놈으로 취급하는 데에 있다.¹⁾

과학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는 -그것이 비유적인 표현이든 개념적인 용어이든- 사회의 관습과 통념을 반영한다. 위의 예에서도 동물세계에서 보이는 강자가 약자와 맺는 관계를 '암놈으로 취급하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남성중심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사물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어떻게 한정시키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관찰자는 숫양끼리의 관계를 공격, 싸움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설명한다.' 따라서 이것을 그들 내의(인간이 아직 모르는) 다른 의식(儀式)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관계양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과학에서 인간의 용어가 가지는 이러한 제한적인 상징성으로 인한 인식론적인 오류는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난자와 정자를 보는 방식도 그렇다. 수동적이고 정적인 난자가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정자에 의해 꿰뚫어지는 과정을 수정이라고 규정했을 때 수정의 과정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는 쪽은 당연히 정자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다. 따라서 난자의 능동적인 역할이 밝혀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되

1) 생명과학에 대한 여성학적 비판, 루스 허바드,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135

었다. 그것은 핵과 세포질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²⁾

결국 과학을 한다는 것, 즉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나온 데이터를 해석하고 가설을 입증해나가는 일련의 논리 과정이 완전 무균, 무결의 세계가 아니라 그 속에서 개입되어서는 안될 여러 가지 편견과 오해에 맞서 무던히 싸워나가는 긴장인 것이다. 과거 골상학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뒤떨어지는 존재임을 입증하기 위해 뇌의 무게와 크기를 재었던 '과학'의 역사가 있었고, 여성의 생리 현상에 대해서는 호르몬의 주기적 변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여성은 (생리를 할 동안만이라도) 논리적인 이성을 갖기 어렵고 감정적이 된다는 해석이 아직도 일정 정도 유용하게 통용되고 있는 현실이 있다. 이런 오해는 다름 아닌 소수에 지나지 않는 여성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하나씩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³⁾ 하지만 그 과정도 '남성의' 과학에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지난한 노력이 필요했음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현대의 발달된 생물학에서 역시 여성에 대한 인식은 편협하고 여성적 경험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전자 조작에 의한 인간 복제기술이다. 인간의 클론을 얻었을 때 그것이 발현되는 곳은 단지 시험관 내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 여성의 자궁 속이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 기술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그 기술이 여성의 육체에 대해 공격적이고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은 IVF(시험관 내 수정) 등과 같은 불임 치료 기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공적으로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키는 이 방법은 많은 불임 부부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준 것만큼이나 실패율도 크고 또 여성들의 열패감과 자괴감, 심지어는 정신적인 병까지 가져다주었다는 것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가정기기의 눈부신 발달은 여성을 곧 가사에서 해방시키고 그만큼 여성들이 과학에 의해 자유로워지고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어떠한 냉장고나 세탁기, 청소기 광고에도 간편한 이런 가정 기기들로 인해 주부가 남성과 같이 가사를 분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여성들이 좀 더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광고 속의 '그녀들'은 어머니로서, 아내로써, 며느리, 딸로서의 역할을 좀더 잘 할 수 있는 '완벽한' 여성이 될 수 있다고 끊임 없이 그럴 수 없음에 몸부림치는 여성들의 콤플렉스를 강화시키고 있다. (요리

잘하는 아내, 집 가꾸는데 능숙한 아내 등등)

과학은 여성에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사회적 관습과 남성위주의 편견에 복종하여 그 억압의 고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였지만 동시에 그런 편견에 맞서온 여성들에 의해 깨어지고 묵은 관습의 비현실성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가정기기로 인해 무거운 가사노동에서 해방되고 피임 기술로 인해 여성들이 자신의 생활 주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균형된 과학의 발달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성취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몸글 II - 여성의 과학하기

최근에 들어서야 몇몇의 여성과학사가들에 의해 숨겨진 여성 과학자들의 업적과 생애가 밝혀지고 있다. 그것에 따르면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여성이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조수라는 위치로, 심지어는 아들의 조수로서만 가능했었다. 당연히 여성의 업적은 남편의 이름으로 발표되어 과학사 속에서 그네들의 업적을 찾아내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대학의 문이 열리지면서 여러 다양한 분야로의 여성진출이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 과거 교육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했던 여성들이 스스로 배우기 위해 들었던 노력을 이제는 겪지 않아도 될 지 모른다. 따라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공계 과학을 하는 여성들의 수가 적은 것은 여성들이 과학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통속적인 설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을 순진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는 점이 많다. 다음의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상황을 보자. 이 표에서 보면 자연과학분야에 들어온 여학생 수는 학사에서는 거의 절반 가량 된다. (이것은 여성대학과 사범대학에 설치된 과학분야까지 포함시켰다.) 하지만 공대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10%도 안 되는 과도 많아 분야별 편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석사나 박사과정으로 진출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것도 특정분야에 한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사회진출현황 역시 대학 내에서의 절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여기에는 의료분야(의사, 간호사) 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연과학이나 공학 쪽으로의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매우 적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성의 뇌는 언어, 예술분야를 담당하는 우뇌가 발달되어 수리적이고 논리적인 과학에서는 남성에 비해 뒤질 수 밖에 없다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만족할 수 있을까?

2) 초기에 핵은 핵심적인 세포의 발생을 결정짓는 단독의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고 세포질은 단순히 세포의 자양분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인식되어졌었다. 하지만 현재는 세포질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호체계가 핵의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밝혀지고 있다.

3) 여성의 월경 경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여기에 새로운 의학이론을 만든 사람은 영국 의사협회와 크리스틴 머렐같은 페미니스트 의사들이었다. 19세기의 골상학도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생물측정학 실험실에서 일하던 엘리스 리라는 여성과학자였다.

표1. 한국의 과학기술인력 배출현황

	학사		석사		박사	
	여성	전체	여성비(%)	전체	여성비(%)	전체
자연과학	9226	19873	46.689	2113	33.66	367
수학	1776	3287	54.95	211	45.17	67
물리학	803	2777	29.64	332	19.5	71
화학	1775	3792	47.180	526	34.12	75
생물학	2288	3964	58.181	454	40.27	97
지구과학	298	556	54.19	55	35.2	9
전산통계	2296	5497	42.150	535	28.3	48
공학	1494	27574	5.155	3735	4.14	645
전자컴퓨터	216	8352	3.32	1293	2.2	206
기계	332	1711	19.38	294	13.3	38
항공	15	5673	0.31	720	0.10	119
화학재료	12	384	3.0	62	0.0	7
토목	254	3017	8.24	422	6.4	80
건축	74	1361	5.6	251	2.2	41
자원	52	2928	2.8	284	3.2	87
원자력	464	3440	13.45	326	14.0	52
	47	489	10.0	37	0.0	12
	28	219	13.1	46	2.0	3

"여자를 어떻게 뽑겠느냐? 당신이 여전데 와서 교수가 됐을 때 남자 교수보다 더 나은 점은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5년 동안 지원할 기회를 기다렸지만 제 분야로는 아예 교수 모집 공고조차 나지 않았고 더는 못 기다리겠다 싶어 LG로 옮겨왔거든요. 이것에 대해 말들이 많았는데 저를 안 뽑으려니까 그 분야로 공고를 안 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도대체 왜 싫어해요?" 했더니 이유는 남자들의 사회는 굉장히 상하관계가 분명한 사회라는 거예요. 선후배관계, 사제관계 아니면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가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것에 남자들이 익숙해 있대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라면서부터 늘 그런 것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4)

분명 여성들이 과학분야에서 좌절하는 이유는 학습 능력의 부족에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조직사회에서 여성을 기피하는 문화의 존재를 먼저 따

4) 그 말엔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조준상 외, 가지않는길 P110-111 interview 인용

져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어릴 적부터 여성에게는 기술에 대한 접근보다는 인형을 안겨주고,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것을 독려하기보다는 어학이나 문학을 잘 하는 것이 더 여성다운 것이라 치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같은 성과를 얻게 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위의 편견을 뚫고 과학분야로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남)교수들과 남학우 위주로 이루어진 대학의 문화적, 조직적 환경 속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며 공부해 나가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주위에서도 그렇고 여성자신도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여자가 아닌 '남자와 같이' 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스스로 체화하고 있다.

현재의 정보화사회에서는 보다 유연한 사고와 상호적인 기술의 발달이 요구되고 있다. 기술의 성격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과학자들의 사회에서는 과거의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유물이 그 때를 벗지 못하고 그대로 되물림 되고 있다. 조직사회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배제된다면 과연 그 조직사회는 얼마나 인간적이고 평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직사회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말하는 효율성에 있어서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상호 소통이 안 되는 위에서 아래로의 일방통행만이 존재하는 사회는 그 보수성에서 일걸을 진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에서 유래없다는 교육열로 인해 여성의 과학 교육의 정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 시스템의 변화와 같이 가지 않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 특히 대학에서의 과학교육에 드는 1인당 교육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절반의 여성 과학 인력을 사장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넘쳐나는 구직난(여성과학인력) 속에 기업들은 오히려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모순이 계속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2. 시험,연구기관의 전공별 여성 연구원 분포(1995)

	여성	남성	전체	여성비(%)
국공립	496	3855	4351	11.4
자연과학	52	255	307	16.9
공학	32	408	440	7.3
농학	244	2716	2960	8.2
의학	142	375	517	27.5
기타	26	101	127	20.5
정부출연기타	761	9895	10656	7.1
자연과학	74	984	1058	7.0
공학	330	7439	7769	4.2
농학	28	400	428	6.5
의학	298	935	1233	24.2
기타	31	137	168	18.5
합계	1257	13750	15007	8.4

외발뛰기로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 현실! - 여성의 과학분야로의 진출은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고려되어지고 양적인 확대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향상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맺는말

이제껏 과학과 여성에 대해 거칠게 정리해 보았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성 - 자연친화적이고 관계지향적이며 유연한 성향 등-이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 여성의 시각이 현재 과학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 위력과, 효율과 생산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 현대 사회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전해 온 과학의 역사를 뒤돌아보았을 때 그것을 입증할 만한 결과를 영장류 학의 외에 별로 찾을 수 없다. 물론 아직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과학분야가 없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무리가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여성성의 존재를 생물학적인 성과 동일시하고 그것에 한정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고, 또 오히려 여성의 인식과 경험을 규정된 여성성에 국한시



- 5) 제인 구달을 비롯한 여성 영장류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시행되는 동물생태연구방법에서 벗어나 영장류 사회에서 직접 관찰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 사이에 알컷의 중요성과 상호작용, 협동의 사회전략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영장류 사회의 이미지에 변화를 가져왔다.

켜 버릴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서도 과학 분야에서 자신들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사회적,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의 이성에서조차 비껴가기 힘든 성의 상징성의 장막을 걷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될 때 과학은 정말로 완전한 인간 해방을 위한 충실한 도구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주의적 의료를 꿈꾸며



자·야

1. 들어가는 글

여성주의적 의료라니? 그렇다면, 현재의 의료는 '여성주의적이지 않은' 의료란 말인가? 그것을 달리 '남성주의적' 의료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말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그런 말은 없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그런 말은 필요 없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남성주의'가 필요하단 말인가? 이미 남성주의적인 사회에서 '남성=의학', '남성=보편'인 마당에 말이다. 이 글은 여기에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현재의 의학 및 의료계가 얼마나 '인간중심적'이 아니라 '남성중심적' 인지를 확인함으로써, 그 반대편에서 출발하여 여성주의적 의료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반-남성중심'이 아니며, 현재의 의학, 의료기술, 의료계 조직 내의 관계들에 대해 소수¹⁾(minority)의 눈으로 바라봄이며, 이를 통해 그 안의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가고자 함이다.

1) 여기서 소수와 함은 단순한 숫적 소수를 말함이 아니다. 여성은 인간의 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숫적 다수이지만, 그 정치적 사회적 입지는 소수자(이때 소수란 영어의 majority, 즉 주류라는 말의 반대어로서 쓰일 것이다)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이 사회 내의 다른 소수자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시선으로 사회적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2. 의학교육과 임상, 연구 분야에 있어서의 남성기준

의학 연구와 임상, 그리고 그 교육에 있어서는, 70kg의 성인 남자의 몸이 규범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해부학 교과서에서 생식 해부학을 제외한 나머지 몸과 기관 해부도의 삽화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 우리가 배우는 표준화된 환자는 70kg 남자라는 점이다. 생리학에선 남성의 평균 심장 무게와 정상 혈압이 얼마인지를 배우고, 약리학에선 남성의 몸무게를 기초로 약물 복용량을 계산한다. 이것은 의학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의 대표적인 논문 「활동과 관상동맥성 심장병 사망률」은 남자 표본만 썼는데도 제목은 일반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 . . 한 연구팀은 심장병 약물 치료와 운동이 심장마비에서 회복되는 데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를 조사했다. 논문의 본문은 연구 대상 환자들을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하고 있었고, 독자들은 표의 각주를 보고 서야 환자가 54명의 남자와 5명의 여자였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은 남자 환자 38명의 결과만을 분석했고 처음에 있었던 여자 5명은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 삭제해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결과가 여성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 없이 치료가 효과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²⁾

이처럼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것이 남자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라는 것을 제목에 내세우지도 않고, 그 결과를 인간-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 결론 짓는다. 반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절한 알콜 소비와 여성의 관상 심장병 발작의 위험에 관한 연구」, 「당뇨병 유형이 여성의 성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제목이 붙으며, 이 결과를 남자들에게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남성의 몸을 기준으로 하는 의학은 여성의 몸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취한다. 그 하나는 여자들에게 정상적이거나 최소한 의학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비정상적이고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남성의 몸을 건강의 기준으로 볼 때, 월경은 비정상적인 병리적 상태이며, 외과대학에서는 임신을 아주 위험한 의료 상황으로 여겨, 건강한 산모와 아이를 만드는 것이 통계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처럼 교육한다. 역사적으로 월경의 비정상성은 여성을 일자리에서 내모는 근거로 쓰이기도 하였으며³⁾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것을 의학적으로 뒷받

2)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캐롤 타브리스, 또 하나의 문화, p106

3)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몸이 다른 것으로 분류되고, 여성의 생리현상이 비정상인 것으로 여

침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월경을 하는 여성은 바깥 일을 하는데 적합치 않다는 과거의 주장에 대해 웃음을 금치 못할 것이다.

또, 반대로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임상도 여성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를 무시한다. 폐암에 걸릴 확률은 남·녀 모두 흡연자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흡연과 관련된 폐암의 종류=남성과 관련된 폐암의 종류라고 배우고, 그렇게 만들어진 족보를 열심히 외운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의사가 되었을 때, 여자환자에서 폐암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났을 때 폐암의 가능성을 배제할 위험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 심장학자들은 여성의 흉통 등 심장병 증세를 무시하여 (실제로 폐경 이후의 많은 여성이 심장병으로 사망함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은 중년 남성의 질병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다른 요인들을 모두 배제한 후 관상동맥 수술을 치치받은 무렵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관상동맥 수술 중 사망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⁴⁾

이처럼 남성의 몸을 기준으로 한 의학은 우리가 대하는 환자의 다양성을 무시하여, 표준 남성이 아닌 환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며, 많은 환자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다. 최소한 소아 환자는 소아과학에서 그들 몸의 전체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여성이 70kg 성인 남자가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산부인과학 분야, 생식 관련 분야 뿐이다.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남성이거나 여성이나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여성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연구에서 대상이 '남성'에 한정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운 "통계학적인 치우침"이라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라면,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한 연구 결과를 양성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3. 여성의 건강 - 임신 및 출산 관련 기술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나 이와 관련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은 여성을 남성과 구분짓는 조건으로 쓰이며,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소위 남성의 영역에서 배제하는데 쓰이기도 하였다. 각종 생식 관련 기술들의 발달은 이런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경험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출산과정에서 고통을 줄여주는 산과적 기술이나, 뱃속의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초음파 검사술은 여성들에게도 환영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기술

들은, 초음파 기술이 개발된 지 15년이 지난 후에야 그것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환자의 입장보다는 의사의 입장에서 시술의 편리성, 의학 기술의 진보라는 의사들의 요구에 의해 개발된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초음파 검사와 양수검사 등 태아 성감별이 가능한 산전 검사법들이 도입된 이후,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라져 버린 여아의 수는 더욱 증가하였다.

또, 시험관 수정과 같은 불임 치료술은 많은 불임부부들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난자를 그 주인에게서 분리하고 시험관 안에서 수정시켜 다시 여성의 자궁 내에서 착상시켜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험관 아기'라는 말로 표현되어, 그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복잡한 시술에 대해선 한 마디 언급도 없이 시험관 안에서의 체외 '수정'만으로 한 인간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또,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은 태아 상태에서의 치료에서 임신부는 그저 태아의 '환경'으로 불리는 일까지도 있다. 즉, 많은 새로이 개발된 생식 기술은 여성을 자신의 임신과 출산 경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그저 태아를 담고 있는 '화분' 정도로 여기는 남성의사와 기술개발자의 태도를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생식기술의 발달에 더해, 유전학의 발달과 인간 지놈 프로젝트의 완결로 이제 태아의 모든 가능한 유전질환들을 screening하겠다고 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이때 어떤 유전병을 screening할 수 있는지는 의과학자(의학은 과학이라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으므로)에 의한 의료기술의 발전 수준, 그 발전의 추진력이 되는 학문적 관심, 그리고 그 학문적 관심이 연구될 수 있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회사나 국가의 이해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물론 질병을 screening하고 나서 그 태아의 운명은 부모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그 선택이란, 그런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과 동료인 '의학과 의료기술의 진보'를 주장하는 의사의 설명에 동의하느냐의 의미가 될 뿐이다. 분명, 태아는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분리되기 전에는 임신한 여성의 몸의 일부로 존재하며, 출산 전 태아에 관한 모든 결정은 어머니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여성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은 완전히 자신의 손에 놓일 수 있다. 그렇지 만,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한, 이런 결정권은 여성 자신의 손에 놓여 있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의료, 의학에서 유전병을 없애져야 할 질병으로 보고 있는 것이, 결국 어떤 사람들을 없애져야 할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여성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몸을 통제할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며, 의료 기술이 단지 의사, 의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놓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거진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다.

4) Tobin et al., 1987; Khan et al., 1990, 앞의 책, p112-113에서 재인용

4. 의료체계 내에서 여성의 지위

의료체계 내에서의 성별 분업은 여의사의 비율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과 관련 깊다고 여겨지는 소아과나 산부인과, 또는 비인기학과라 불리는 병리과나 재활의학과 등에서 높은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미 공공연하게 어떤 과에서는 여학생을 뽑지 않는다는데라, 뭐 그런 예기들을 들어오고 있다. 여의사의 수가 비교적 많은 과에서도 여자 교수의 수는 거의 0에 가깝다. 또, 의료계 내에는 여의사나 간호사, 약사 같은 전문인 뿐 아니라, 조산사나 간병인, 산후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 의료 제공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와 그 외의 사람들의 관계는 의대 수업 시간에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해야 할만큼, 반대로 위계적 질서로 유지되기도 한다.

또, 병원 안에서 여성환자의 지위는 어떠한가? 강간 피해자가 충격으로 인해 발작 시, 정신병원에서 남성 보조사에 의해 붙들리고 침대에 묶이는, 그래서 강간 피해 당시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과정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 더욱 심해지는 것과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의사, 또는 의료계에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환자를 바라보는 남성중심적 관점을 반영한다.

의료계의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은 어느 정도는 전체 사회의 통념과 관행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의료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점에서는 반대로 이러한 성에 따른 분업과 고정관념이 전체 사회에 강한 성적 편견의 메시지를 전한다. 예를 들어 간호사와 의사의 위계적인 관계는 의료 소비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젠더의 사회적 서열을 강화하는 것이다.⁵⁾

미국에서도 doctor-patient relationship이라는 과목이 있을 정도로, 의사와 환자의 감정적 유대감이 강조되고 있으며 의사는 더 이상 환자에게 군림하는 존재가 아님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 의사 외의 의료 제공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협력자로서의 관계임을 주지하고 변화의 노력을 스스로 기울여야 한다. 또한, 수련의 선발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여학생 모집 제한이라는 고급인력의 낭비는 교육 투자에서의 효율성이라는 면에서도 없어져야 할 묵은 관행이 아닐까?

5) Susan Sherwin, 1992, 남성의 과학을 넘어서 중 페미니즘으로 본 의학과 여성의 건강, 오조영란, p110 에서 재인용

5. 맺는 말

의학도 과학으로서 강조되면서, 생의학적인 관점은 흔히 들어오듯, 환자를 case로 보고, 질병으로 파악하며, '인간'으로 보는 능력을 상실해 왔다. 그러나 예방의학 시간에 이미 배웠 듯이, 질병이란 단지 병원균이나 유전형질의 이상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에서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불안정, 보건위생, 환경, 정치, 문화적 요소 등 제반 사회적 여건에 대한 이해와 개입이다. 따라서, 여성 건강의 문제는 여성의 열등한 지위와, 성차별이라는 요소를 치료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⁶⁾ 성폭력 피해자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상을 케매고, 그에 대해 처치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여성의 건강을 지켜내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의학, 의료계도 사회적 조건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여성의 몸에 관한 진실을 연구하고 알려내기 위해 노력할 의무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사회적 조건에 무심한 듯한 태도로 여성에게 지워진 낮은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일조하는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구결과와 치료 기술의 사회적 의미를 따져 보고, 진정한 진실을 밝히는 의료인으로서 말이다.

6) 앞의 책 p89

의대 수업 뒤집어 보기!



레드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수업을 유심히 듣는다. (물론 필자같은 예외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졸다가 어쩌다 눈을 뜨면 귀가 번쩍 뜨이게 만드는 수업이 간혹 있다. 귀를 크게 열어 즐겁게 수업을 듣노라면 그러한 수업은 평소에도 유심히 들던 사람이 아니라 나처럼 잠자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강하게 갖게 된다. 어떤 이는 '별 것 아닌 일'로 트집을 잡는다고 하겠지만 그런 것 하나 하나가 모여 유쾌하지 않은 일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목표는 수업 중 교수님들이 하신 발언들을 하나하나 공격하는 데 있지 않다. 당연하게 섭한 말씀을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의심없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나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생각'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는 것이 목적이다.

기독교와 과학주의의 묘한 동침(생화학)

"인체 내의 양이온의 총전하량과 음이온의 총전하량이 같지?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는 것이야.(잠시 후) 그런데 음이온보다 양이온의 물수가 더 크지? 이것은 권력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야. 여자들이 말이야."

좀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한 맛이 있어야지 안 그래? 여자가 있어야 할 곳은 가정이야, 가정!"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야. 과연 누가 이렇게 오묘한 질서를 만들어 놓았을까? 이것은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지.(신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DNA에 프로그래밍되어 있어. 이것 봐. 꼭 음이온은 양이온과 양이온은 음이온과 결합을 하지? 이렇듯이 꼭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단 말이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의 뜻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다. 그런데 이것도 다 DNA의 작용이라고."

아마도 부분적으로라도 위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어쩌다 나이 든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나보다 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는 상당히 전형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 볼 필요는 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gender나 sexuality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다. 이들에게는 시대에 따라 민족이나 집단에 따라 인간의 성활동과 역할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표준'에 어긋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가정이 고정 불변의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자연의 섭리니, 신의 뜻이니, 음양의 법칙이라느니 하면서 '표준'과 어긋나는 삶을 단죄하기 일쑤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표준'이 정말로 자연과 신의 섭리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Sexology라는 분야가 있다. 이들은 현대 인간 사회의 주류적 성문화란 진화 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자리잡은 '별수 없는 본능'이라는 설을 내놓는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은 예외적 현상들을 이르면 그들은 이들에게 무슨 '유전적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지 유전자가 아니다.

실제 연구자들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중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종교적 의미에서 '신의 뜻'이나 동양의 음양론은 과학과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들을 잘 뒤섞어 자신들의 논리를 만든다. 논리란 만들기 나름인 것이다.

처녀막의 신화-조직학

"여기가 hymen이지요. 흔히들 처녀막이라고 부르는데 첫 sex intercourse에 의해 이것이 파열되면 기혼녀가 되는 것이예요."

여교수님의 강의라서 그러했나?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다. 물론 위는 hymen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통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학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넘어가셨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여교수님이라고 해서 여성적인 의식을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딱히 교수님을 비판할 생각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나? Hymen을 왜 처녀막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막이라는 것은 통로를 막고 있는 구조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무엇인가에 의해 강제로 뚫린다는 가정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막이라면 생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Hymen은 개인에 따라 모양이 다르며 여기에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다. 주로 1-3개이다. 이것을 정말로 '막'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첫 성교에 의해서 파열된다는 생각도 고정 관념이다. 성교에 의한 출혈이 많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며 거친 운동이나 집어넣는 생리대 때문에 출혈이 있기도 한다. 그리고 첫 성교에도 파열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한다. 순결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처녀막'이라는 말 대신에 hymen의 다른 이름을 지어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여성의 매춘은 생물학적인 근거가 있다?(행동과학)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멀티 오르가즘이 가능하고 휴지기가 없지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거나 매춘 등의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이날 행동 과학 수업은 비교적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교수님은 인간의 성이 시대의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셨고 '성적 지향'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도 지양하셨다. 그리고 비디오 두 편도 무척 흥미롭게 봤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욕의 티가 있었다.

과연 성매매가 인간의 신체적 조건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일까? 필자는 성해방주의자라고 하는 남성들은, 특히 우리 과 익명 게시판 정도의 논의 수준에서는, 일단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섹스와 일부 '건방진' 여성들이 생각하는 섹스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성매매와 강간이 섹스로 보여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삼입 성교여야만 섹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성폭력은 성이 아니고 폭력이다. 또한 성기 삼입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도 의문이다. 어쨌든 성매매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성매매 대신에 흔히 쓰이는 단어는 '매춘'이다. '춘'은 봄 '춘'자로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매춘 여성들이 즐겁고 자연스러운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을까? 천만에, 상당수 매춘 여성들은 빚에서 헤어 나오기 위해,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싫은 손님을 받는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성기만을 판다고 하지만 신체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나 그들 육체의

통제권을 남성이 갖게 되기가 일쑤며 이들의 인권은 쉽게 유린된다. 어떤 이들은 강간 여부를 화대의 유무에만 두고 있을 정도이다. 그럼 술술 질문에 답을 해야겠다. 하필 성을 파는 사람의 대부분이 여성인 이유가 생물학적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IMF 때 주부 매춘이나 소녀 매춘(원조 교제가 아니다)이 늘었다고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었던 적이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일터 밖으로 내몰렸을 때도 성산업은 호황이었다. 남성들은 실업자가 되건 노숙자가 되건 그 이유 때문에 몸을 팔지는 않는다. 일단 이 세계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몸을 살 수 있다는 가정이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많은 PT여성들이 사회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노동자였고 매춘부였고 어머니였다. 또한 때로 국가의 필요에 의해 성산업이 장려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끝으로 교수님의 생각과는 반대로 '남성은 성욕이 강하며 주체할 수 없어' 매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업 이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다

Morphology에 속지 마라고?? 나도 안 속애(병리학)

"여러분, 일단 여자 환자가 오면 무슨 과든지 임신 test를 꼭 해 봐. 요전에 응급실로 16살쯤 된 여자에 하나가 실려왔어. 얼굴 창백하게 질려가지고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는 데 어디가 문제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 말이야. 애가 참 청순하게 보이는데 옆에 애 오빠라는 남자가 같이 왔었지. 이 검사 저 검사하면서 원인은 도통 모르겠고 혈압은 자꾸 떨어지고... 임신 여부가 의심되기도 했지만 '설마 저렇게 생긴 소녀가...'하면서 지나쳤어. 나중에 보니까 자궁 외 임신이더라. 옆에 있던 사람은 남자 친구더라구. 여러분, 환자의 Morphology에 절대로 속으면 안돼. (중략) 예순이 넘었는데도 폐경을 하지 않은 것이야. 그 나이에 임신을 한 거야. 수위 아저씨랑 한 거라나." (학생들 즐겁게 웃음) 과연 자신이 대했던 환자들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일단 여자 환자에게 그런 test를 해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의 몸에 대해서 몇몇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지만 워낙 여성의 성이 청소년의 성이 부정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들도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는(학생들의 반응까지 해서) 이런 '타자'들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성인 남성의 오만이 숨겨져 있다. '청순한 외모' 때문에 임신 test를 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의사의 잘못이다. 여기서 순수한 소녀란 결국 성경험이 없는, 혹은 무성적인 인간임을 뜻한다. 위에서 성인이 되지 않은 소녀는 성적으로 무지해야 도덕적으로 옳다는(어쨌든 이러한 가정 하에서 그녀는 피임하는 법을 몰랐을 수도 있다.) 식의 혼계도 들어 있다고 보인다. 다음은 예순 살의 할머니(?)의 이야기다. 폐경에도 개인차가 있으므로 그 나이에 폐경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것을 의사가 놓칠 수도 있다. 또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환자 당사자가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나이 든 여자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들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조심했어야 할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

어서 무슨, 자식 결혼시키고 손자 볼 나이에 '하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재생산 시기가 지난 여성의 성적 권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60대 넘은 할아버지들이 동남아에서 현지처를 두고 기생 관광을 해도 그런 비난을 듣지는 않는다. 문제는 여성의 성만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래서 성적 주체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상황인 것이다.

중립적인 듯한 morphology에 속지 말자.

글을 맺으며...

의대 사회, 의사 사회는 지리할 정도로 권위주의적으로 이름이 나 있다. 그리하여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은 다른 공간보다 쉽지가 않다. 물론 누군가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인간 관계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권위주의적인 조직체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어느 수준까지 진실인지는 아직 필자의 능력으로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권위'에 눌러 '또 다른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비록 최근 들어 여학생들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들의 수업은 남성 중심적이다. 의사의 이미지가, 의사 조직이 남성적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자신을 남성과 동일시하기가 쉽다. 더군다나 여기에 교수님들의 하늘같은 권위가 작용해 여학생들 마음속의 '다른 생각'은 감히 비집고 나오지 못하며 명백히 유감스러운 발언에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 이제 묻혀진 생각들,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인턴의 왕수다



·인턴 P·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게 된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관계는 직종간, 그리고 연차간 특유한 수직관계를 갖기 때문에 황당한 일도 많다. 이 글을 그런 일들에 대한 비판보다는 내가 경험한 일들에 대해 수다를 떠는 기분으로 적어나가려고 한다.

국가 고시를 합격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취직이 되어 이제 인턴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으려 할 즈음, 나는 이미 인턴 일의 비전문성이라든지 고됨에 대해서 듣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 인턴 일을 배울 때 방사선 필름을 찾고, 필름을 나르고, 환자 검사일정을 push하는 것이 주된 일인 것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었다. 오히려, 병원장 선생님께서 내가 필름을 잔뜩 들고 나르고 있거나, 과별 모임 공고 게시물을 게시판에 부착하고 있을 때, "자네. 어떤 과에서 이런 일을 시키고 있는 건가? 왜 인턴이 이런 일을 하지? 인턴은 인턴 job을 하라구." 라고 말씀하시면 '선생님도 참. 선수끼리...선생님도 인턴 해보셨을 텐데? 수십 년 전이겠지만...'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래서 얼른 대답만 "네" 하고 남은 필름과 게시물을 처리하기 위해 자리를 뜨곤 했었다.

하지만 알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잘 모르는 것이 있었으니, 인턴은 밤시간에도 예외가 없이 call 받은 일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병동 환자로부터 오는 call뿐만이 아니라 필름, 차트를 찾는 사소한 일마저 말이다. (잠에 굉장히 연연하는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해가 가리라 믿는다.) 하루는 새벽 2시에 가까스로 자리에 누운 나

에게 3시경 급히 call이 쏟아졌다. 갓 1년차가 된 선배가 열쇠로 의무 기록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차트를 찾아오라고 사뭇 명령조로 말했다. 처음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 보아하니 낮에 찾아 놓았어야 할 차트를 못 챙기고 있다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챙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급한 사람이 누군데 그런 말투로 일을 시키는 것이며, 새벽 1,2시도 아니고 새벽 3시에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은 자기가 못 자고 있으니까 인턴도 그래야 한다는 심보인가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다. 게다가 당시에는 인턴 일이 초턴들에게 완전히 내려와 있지 않아서 자기가 못한 일을 인턴에게 미루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도대체 왜 그런 뒤통수대접을 인턴이 맡아야 하는 건가? 나도 모르게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선생님이 하세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 버렸다.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는 새벽에 차트를 찾는 일은 당연히 인턴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당시 내가 전화를 끊은 뒤 다시 call을 해서 내게 다시 차트를 찾아 줄 것을 '부탁'했던 것도, "인턴하다 보면 정말 이해 안가는 일이 많을 거야."라고 위로해 줬던 것도 다 그 선배가 인간성이 좋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만약 잘못 걸렸다면 난 첫 term부터 malig로 찍혔을 거라는 것도. 처음의 그런 용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된 육체와 정신 속에 묻혀져 갔고, 난 밤에도 문 잘 따고, 외래 shutter도 잘 열고, 좁은 구멍으로도 잘 통과하며 끝까지 없어진 차트와 필름을 추적하는 끈질긴 인턴으로 잘 적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응급의학과 인턴이 되었다. ER에서는 환자가 내원하면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나름대로 impression을 갖고,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인턴의 일이다. 지금까지 했던 일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 들었다. 떨리기도 했지만 의사다운 일을 하는 것 같아 힘이 났다. 하루는 환자도 적고 중환도 없어서 설명을 좀 열심히 했었나보다. 환자가 집에 돌아가면서, 설명을 자세히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응급실 수간호사 선생님이 나를 보시자, '어머, 선생님이 P 선생님이세요? 어제 한 환자 분이 친절 직원에 P 간호사를 추천했더라구요. 누군가 했는데...'라고 하셨다. 가운 때문인지,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와본 사람은 알겠지만 인턴 가운이 참 독특하다. 사파리 같은 디자인에 색도 시멘트 색이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젊은 여자=간호사라는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나를 간호사로 생각하는 환자, 보호자들이 대다수이다. 장기 입원자나 직업 간병인이 아니고선 거의 간호사라고 생각할 정도다. 어쨌든, 내 급하고 욕하는 성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친절 직원으로 추천을 받아보긴 했지만, history도 하고, physical exam도 직접했고,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도 직접 했는데, 의사로 보이지 않는다니 뭐가 잘못일까 하는 생각에 좀 씩씩했다. 사건이었다.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 하면서 사실 제일 많이 접촉하게 되는 것은 병동 간호사들이다. 하루는 바쁘게 움직이다 병동 환자의 심전도를 찍어야 했다. 차트에 끼우려고 잠시 다른 차트 위에 올려놓았는데, 하필 그 차트에는 glycerin이 묻어 있었다. 다시 심전도를 찍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다른 일들을 빨리 처리할 수가 없으니 마음이 급해졌다. 병동도 한참 바쁜 시간이었어서 간호사 한 명만 스테이션에 남아있었다. 얼른 심전도를 집어들고 앞에 서 있는 간호사에게 "혹시 스테이션 안쪽에 휴지가 있나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간호사가 "글쎄요. 직접 찾아보세요."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곧 "바빠 죽겠는데 그것까지 찾아드릴 여유가 없네요."라고 덧붙였다. 병동마다 손 닦는 타월 휴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고 스테이션 안으로 들어가던 나는 잠시 멍찔했다. 결코 휴지를 가져다 달라고 시킨 게 아니라 단순히 휴지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울컥해서 "어디에 휴지가 있는지 물어보려는 건데 왜 짜증을 내세요?"라고 말했다. 간호사는 "제가 언제 짜증을 냈어요?"라고 말했고 나는 몹시 흥분해서 울먹하며 "지금 내셨잖아요."라고 했지만 간호사는 병실 쪽으로 사라지며 "바쁜데 그 정도로 대답하면 잘해준 거지 뭘 그러세요?"라고 했다. 열받은 나는 다른 병동 간호사가 항암제도 제대로 setting해 놓지 않고 연결해달라고 call한 것에 대해 엄청 화를 냈다. (그럼 안 되는 거지만.)

의사-간호사의 관계가 사실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병원에서는 명령-복종의 관계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처방을 의사가 내면, 간호사는 그대로 따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인턴은 주로 잡일을 맡아서 하고 초턴때는 정말 어설피기도 하기 때문에 종종 병동에서 짜증을 듣기도 한다. 아마도 내게 화를 낸 병동 간호사도 내 말을 마치 휴지를 찾아달라는 당연한 명령으로 듣고 화가 났을 것이다.

인턴으로 일하다 보면 '빨리 빨리'란 말이 머리 속에 가득 차고 사람이 조금 해진다. 그러다 보니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도 마찰이 생기고, 환자에게도 짜증을 내고, 설명도 생략하게 되는 것 같다.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각자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유를 갖고자 하지만, 워낙 적은 인원으로 병원일이 돌아가다 보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쨌든, 앞으로 인턴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길 빌며 인턴의 왕수다를 끝마칠까 한다.

-인공 기생충 출현! 가부장사상충이 돌고 있다!

혹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운이 좋게도 지하철 좌석에 앉을 수 있었다. 물론 출퇴근시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니 당신은 일없이 노는 백조(혹 백수)이거나 어쩌다 늦잠을 자서 한낮에야 움직이기 시작했겠지. 어쨌든 여러분 바로 옆에는 한 사람이 앉을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다고 하자. 여러분은 목적지까지 가는 일이 매우 즐겁다.

그런데 다음 역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 출입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이나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신문을 한쪽으로 말아쥐고 잔뜩 찌푸린 얼굴로 들어온다. 그리고는 둘레둘레 '내 자리 어딤나?' 주위를 살펴보고 하필 내 옆자리로 와서는 턱 주저앉는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여러분은 자신의 공간이 갑자기 이 아저씨가 앉던 때의 3분의 2로(심할 때는 절반이 되기도 한다.) 줄어들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무릎을 붙이게 된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처음부터 다소곳이 무릎을 붙여 앉는 사람이라도 별 상관은 없다. 왜냐하면 이 아저씨들은 어떻게든 빈 공간이 있으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일 옆자리의 아저씨가 다리를 쭉 벌리고 앉았다면 한번 있는 힘을 다해 당신 다리를 벌려보기 바란다. 옆자리 인간의 다리살이 닿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 이미 유쾌했던 기분은 모두 잠재버린다. 있는 힘을 다 쓰기가 빳하다고? 그렇다면 조심스레 다리에 힘을 주어보시길. 엇? 처음에는 저 쪽 다리가 움찔한다. 그래서 약 2-3cm의 빈 공간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나 내 다리가 1cm를 이동하기도 전에 저쪽 다리가 자동적으로 도로 꽉 퍼진다. 옥, 저 다리살의 감촉으로 볼 때 도무지 인간의 살을 대하는 것 같지 않다. 웬 흉측한 해충 한 마리와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일까? 이번에는 내키지 않지만, 다시 다리에 힘을 주어본다. 이번에는 저쪽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어떤 때는 's'자가 들어간 외마디 말을 하기

도 한다.) 그냥 포기하기로 무릎을 딱 붙여 앉는다. 이제 저쪽의 다리는 거의 180도로 퍼진다.

여러분 중에 성격이 팔팔하다 싶은 사람은 직접 대놓고 뭐라 한 마디 해 줬을 지도 모른다. 어떤 분은 귀찮기도 하고 공공장소인데 신경도 쓰이고 해서 가만히 는 있는데 속만 끓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이기적인 발상이다. 왜냐하면 저들이 다리를 쭉 벌리고 앉는 이유에는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가? 기어코 다리를 펼칠 수밖에 없는 눈물겨운 속사정이? 한번 생각해 보라. 필경 그들의 다리 사이에는 다리를 벌리게 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리 사이에는 무엇이 있나? 그것은 이름하여 '거시기'! 그렇다면 '거시기'가 얼마나 크길래 저러한가? 야구공? 야자열매? 아니면 축구공? 이제야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이 발동한다. 과연 그렇게 커진 이유가 뭘까? 여기 유력한 가설 하나. 혹시 기생충학 슬라이드를 졸지 않고 본 적이 있는지. 참혹하게 elephantiasis된 사지며 성기가 떠오르지 않는가? 그들의 증세가 어떤 종류의 기생충 때문이라 가정하고 한번 그들의 거시기를 천자하여 슬라이드 글라스에 도말해서 찰해 보자. 뭐가 보이는가? 아니, 천자하자마자 흰색 액체가 팔팔 쏟아진다구? 그렇다면 비커에 담는다. 액체 위에 동동 뜨는 것은? 참 못생긴 자잘한 벌레들이다. 이것들은 국내의 미기록종으로 여러분은 이제 기생충학에 지대한 공헌을 한 셈이다. 그러나 이걸 어쩔담. 듣는 악이 하나도 없다. 아마도 외과적 적출만이 소용이 있을 듯하다. 그런데 찬찬히 환자들을 관찰하니 모두 그것들은 쉽게 거시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찌찌찌찌안! 이제 외과적으로 병소를 적출하는 일만 남았다. 여러분, 가부장 사상충에 고통받는 환자들을 구하러 가는 것이 어떠한지?

나란히 서있는 여인들

코너 후미코(일본)

귀를 열고 주의를 기울이면
여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지구 중심으로부터
깊은 숲속에서 울리는 소리 같은
여인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친다.

여인은 홀연히 서있다.
그녀 자신을 되찾기 위하여

남자에 의해 이름 붙여진 여인은
그녀 자신이 결코 아니다.

그녀의 삶은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져야만
한다.

남자들의 요구대로 이루어진 형상은
진실된 여인의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 스스로에 의해 자유로와지리라.

귀를 열고 주의를 기울이면
여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세상 곳곳에서
여인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친다.

새 세계의 질서를 창조해 나가자고.

또다른 여인 곁에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다.
인위적인 것은 결코
새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계획적인 것은 결코
기념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시대의 죽음의 전쟁을 기억한다.

국가가 만들어낸 공포 속의 평화는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 스스로에 의해 창조된다.

귀를 열고 주의를 기울이면
낮선 자들의 합성이 들린다,
땅 속 깊은 심연에서.

그 발자국 소리는 우리들의 것이다.

그 목소리는 우리들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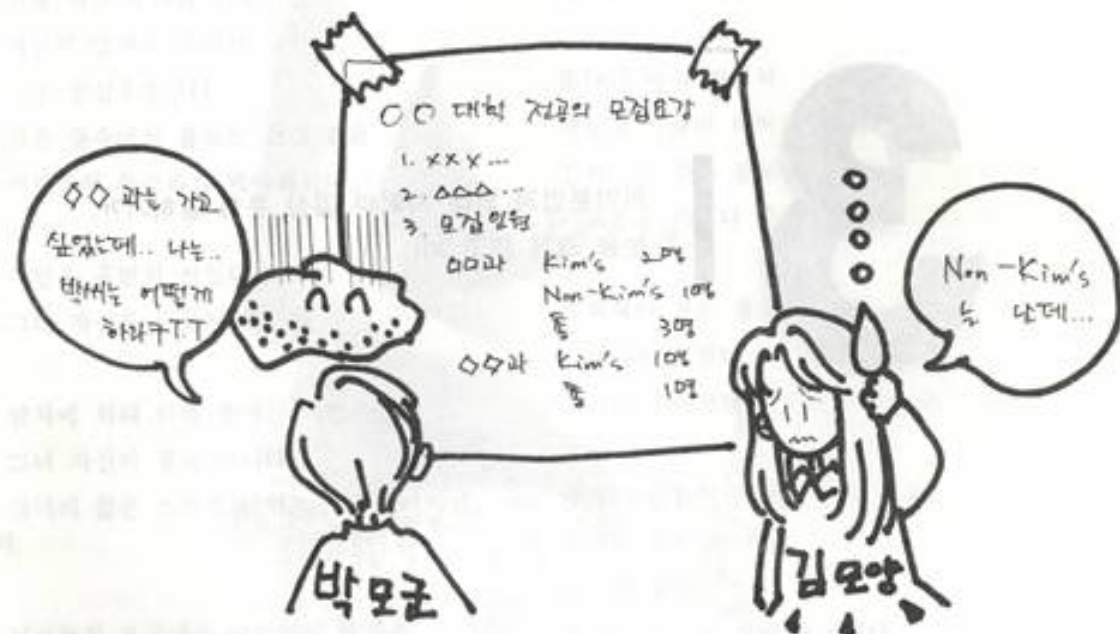
3

의약분업과 의대 사회의 일상 문화 말하기?!
눈을 크게 뜨고 봐!



우리가 Kim's plan에
대해 알고 싶은
한두 가지 것들

자야



1. Kim's plan이란?

Kim's plan이란 1955년 정부에서 일정 수의 전문의 과정을 거친 군의관을 확보하고 의대 졸업생에게 중단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군입대 연기 제도'로 당시 국방부 장관(김정렬)의 성을 따서 Kim's plan이라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의/치대 사회에서 Kim's plan이라 불리는 것은, 실제로 전국 의/치대에서 행해지는 '수련의 선발 제도'를 일컫는 것이다. 여기서 Kim's(군보)는 '군대에 가야할 사람', Non-Kim's(비군보)는 '군대에 가지 않을 사람(즉, 여학생과 군대에 이미 다녀왔거나 군입대 면제자인 남학생)'을 의미하며, 전국 대학 병원에

서는 인턴, 레지던트 임용에 있어 적정 Kim's의 수를 정해 Kim's와 Non-Kim's를 차별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Kim's의 적정 인원은 Kim's plan 도입 당시의 목적에 따르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필요한 군의관, 공중 보건의 인력을 대학병원에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의 Kim's/Non-Kim's 비율은 대학병원에서 '임의로' 인원수를 정하여 국방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0월 21일에는 차별적인 의대생 선발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의 모임 (NONKIMS 모임) 주최로 Kim's plan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Kim's plan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한해 의과대학 졸업자 수 3천3백명 중, 이중 2/3가량이 군보라 할 때, 이는 7백명 정도의 군의관 수요를 훨씬 넘는다. 군의관이 되지 못한 지원자 대부분이 비군보인 공중보건의나 의무병으로 돌려지고 있는데, 공중보건의나 의무병 출신이라도 병역필을 했다는 이유로 인턴이나 전공의 선발시험에서 가산점(의대 3%, 치대 10%)을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서울의 모 대학병원의 최근 5년을 조사한 결과, 과별로 비군보의 TO가 전혀 없는 경우, 또는 군보의 수에 비해 매우 적은 수만을 뽑는 과들이 많아, 여전공의가 신경외과, 일반외과 등에는 아예 없거나 수년에 한 명 정도이고, 반대로 산부인과, 소아과 등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듯 하다.

서울의 다른 대학 병원에서 여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공의 지원 시, 담당 스텝이나 전공의 선배들의 비군보는 뽑지 않으니 피하라는 권유(?), 담당과장의 여자 전공의를 뽑지 않는다는 방침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하며, 그런 압력들로 인해 지원 과를 바꾸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공의로 선발된 이후에도, 결혼이나 임신 시기에 대한 압력, 수술방에서의 배제와 같은 성차별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남 대학의 한 교수님에 의하면, 현재는 각 병원 단위로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여 병원협회에 이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전공의 모집 시 과별로 군보, 비군보의 비율을 정해 공고하며, 이 비율을 국방부에 보고한다고 한다. 병원 협회나, 국방부에 보고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승인되기 때문에 어떤 과의 군보/비군보 비율은 실지로 각 과 과장 교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 군의관 수요를 월





선 넘치는 군보수가 있는 마당에, 현재에는 이런 비율을 정하지 않고 전공의를 모집하더라도 군의관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군보 비율 책정 없이 전공의를 모집하고 차후에 보고를 하더라도 군인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국, Kim's plan은 여학생 수가 50%정도로 증가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서의 필요와도 관계없는 군보/비군보 비율을 사전에 책정함으로써 전공의 모집에 있어서 성차

별적인 관행을 유지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의과대학 내에서의 성차별 사례들은 제도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 시의 압력이나 전공의가 된 이후에 수련과정에서 이미 남성중심적인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들이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고, 공정하게 선택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기본적인 원칙일 것이며, 이번 Kim's plan에 대한 논의가 의과대학과 병원 내에서의 남성중심적인 문화를 걷어내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연대의 창

롯데 호텔

여성 노동자들의 분노

레드

일반적으로 여성 노동 문제는 곧 평등 고용의 문제라고만 생각한다. 그래서 입사 후 여성들이 승진이 늦고 도중에 일을 그만두기까지 하는 이유는 모두 그들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여긴다. 그리고는 '여자들도 변해야지...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라며 너무나 쉽게 말해 버린다. 그러나 여성 노동의 문제는 노동의 문제인 동시에 여성의 문제이며 여성 노동자의 권리는 여성의 성적 차이를 존중하는 '여성권'을 전제에 두어야 한다. 여성 노동자의 권리에는 모성 보호를 받을 권리,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더 나아가 남성 중심의 노동 문화를 바꾸어갈 권리 등이 있다.

남한 사회 어디에서건 여성의 독자적인 권리가 존중되는 공간이란 없지만 이 글에서는 직장 내의 성희롱에 관해서만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93년 서울대 신경휴 교수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분위기 띄우는 농담'이나 '직장 생활의 활력소' 혹은 '딸 같은 여직원'에 대한 친밀감 표시' 줌으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의 부과'로 규정되나 여기에는 성적 행위기 뿐만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행위⁸⁾도 포함된다.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성적으로 실없이

7) 불쾌한 응시, 성적인 제스처 등 의 시각적 형태, 접촉, 애무, 추행, 강간 등의 육체적 형태

뿐만 아니라 음란물의 전시나 성적 봉사 요구 등이 모두 포함된다.

8) 외모나 옷에 대한 평가, 성차별적인 발언, 여성 비하적 발언(욕설, 반말 포함)이나 몸이나 청소의 요구 등의 고정 관념적 성역할 수행 요구 등이 해당한다.





놀리는 것'을 의미함으로 그리 적절한 용어는 아니라는 비판이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대로 쓰기로 하겠다. 성희롱은 여성의 성적 자율권 침해이자 노동권 침해라는 이중의 피해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때로는 롯데 호텔의 경우와 같이 여성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을 불러오기도 한다.

롯데 호텔은 성희롱 왕국이었다? 지난 파업 기간 내에 롯데 호텔 여성 노동자들이 사내 부당 행위를 고발하는 자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야 그간의 거대한 실체가 파악이 될 수 있었다. 롯데 호텔 여성 노동자들은 7월 12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주노총 등 모두 8개 단체의 공동 명의로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2항(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반한 데에 대한 고발장을 노동부에 접수하였다.⁹⁾ 이에 따르면 전체 여성 노조원 382명 중 70%가 직장 남성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진술된 성폭력 유형에는 성적 농담, 음담패설, 신체에 대한 모욕, 신체의 강제적 접촉과 음주 동석 요구, 강간과 강간 미수 등 가능할 수 있는 모든 형태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아침 미팅 때 여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술자리에서 함께 블루스를 춤을 강요하는가 하면 임신한 여성에게 "지금 산란기냐", "밤에 좋은가" 등의 성적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 인사와 승급 등에 불이익이 돌아가는 결과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은 불만을 드러내지 못하였었다.

이 사건이 못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읽혔을까? 그 야만적이기 짝이 없는 폭력 진압에 대한 선전물을 보고 난 한 남학생의 반응이다. "원래 나이트 클럽에는 그렇고 그런 남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냐? 나이트 클럽에 근무 중 성폭력이라면 무슨 설득력이 있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호텔, 나이트 클럽 등이 성적인 공간이며 비도덕적인 남성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지나치게 성찰이 없는 것이다. 과연 성희롱이 개인의 비도덕성에 의한 것인가? 성희롱은 개인의 행위이더라도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사회적 폭력'이다. 성희롱의 대상이 모두 여성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희롱은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가 '남성다움'으로 정당화되어 버리는 것을 볼 때 '도덕' 개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더구나 현재의 '성도덕'이란 기껏 여성의 성적 주체가 될 수 없게 만들고, 남성의 금욕 행위를 호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문제는

9)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폭력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성 권력의 횡포에 맞선 '여성의 성적 자율권'이라는 봉기적 권리로써 사고되어야 한다. 어떤 공간에서라도 업무와 상관없는 원치 않은 행위를 강요받을 수 없는 것이다.¹⁰⁾

이 사건을 보는 또 다른 혼란한 관점은 이 사건은 노동자의 문제이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사회주의자는 자신의 글에서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는 서로 적대해서는 안되고 서로 협력하여 해방을 이루어 내야 할 주체"라 했다. 이런 말은 현실적으로 성차별주의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노동 계급 남성은 쉽게 이데올로기적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된다. 아니면 여성 노동자의 여성으로서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 버리기도 한다.¹¹⁾ 만일 단순한 노동의 문제라면 왜 하필 그녀들이 성희롱을 경험해야 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동안 남성 동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방관하거나 심지어는 공범이기도 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지난 6월9일 시작된 호텔롯데 노조의 파업이 53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호텔 롯데 노사는 31일 노동부 장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마지막 쟁점이었던 파업참가 노조원의 징계 최소화화 성희롱 소송취하 등에 합의함으로써 막판 타결을 이끌어냈다. 롯데 호텔 여성 노동자들의 집단 성희롱 소송은 비정규직화가 가

- 10) 어떤 공간이 성적인 의미를 띠느냐하는 것도 본질적이지 않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을 벗어나서 여성에게 할당된 낮은 지위에서의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은 모두 '성적 대상'='직업 여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식이 관찰됨에 따라 사회적 의미가 비로소 형성이 된다.
- 11) 이와 같은 경향은 이른바 '계급 중심성' 수용 여부'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과연 '계급'은 단일한 주체인가? 혹은 남성 노동자의 이해만이 노동계급 전체의 이해라 오해된 부분은 없는가? 여기서 어느 모순이 사회의 중심적 모순이냐는 문제는 충분히 논의로 할 수 있다.





속화되는 노동 현실에서 노동권 전반에 대한 투쟁이었음과 동시에 남한 사회에 뿌리깊은 남성중심의 유교적 가부장문화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타결된 안은 어딘지 11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270명 여성노동자들의 성희롱 소송을 맞바꾼 듯한 느낌이다. 결과적으로 노조 측은 성희롱 소송을 사용자측을 압박하기 위한 협박용 이상으로 사고하지 못한 것이며 이후 대책위원회 활동이 노조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해 버린 것이다. 운동 진영 내에서도 엄존하는 남성 중심적 한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물론 타결된 협상안에는 사내 성희롱 고발 창구 및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인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예방에 관한 안'이 첨부되었다. 앞서 말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롯데호텔 여성 노동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날로 열악해져 가는 전국 500만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고 나아가 진정한 노동해방, 여성해방의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기회를 다녀와서..

레드

기지촌 현장활동? 대부분의 학생들의 머리에는 커다란 물음표가 새겨질 것이다. 농활, 환활과는 달리 기활은 '대중적 연례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현장에서 많은 수의 학생들을 바라지 않는다. 그 지역의 많은 여성들은 자유롭게 외부인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그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모두 탈 매춘을 바라며 자활 센터에 다니는 소수의 'survivor'인 것이다. 이분들을 대하는 데도 조심해야 할 측면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되도록 가족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몸에 난 상처들의 내력을 물어서는 안 된다.' 등등...또한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특히 그곳 여성들에 대한 학우 대중을 비롯한 대부분 '외부인'들의 인식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자기들이 좋아서 미군에게 간 사람'이라며 같은 민족의 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지역 여성이 미군에 의해 살해되었을 때 일부 민족주의 진영에서 그녀들을 '외세에 짓밟힌 순결한 우리 누이'라 칭하는 것이 이들에게 공감을 살리 만무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매춘에 대한 수많은 미신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도 하다. 필자는 평화인권연대라는 사회 단체와 함께 동두천 지역의 기지촌 여성 자활 모임 중 하나인 '새움터'에서 5박 6일 간 기활을 수행하였다. 영어로 쓰인 가게의 간판들을 보며 멍한 정신으로 도착한 곳이 허름한 가게의 3층이었다. 그곳이 새움터의 사무실이다. 매일 그곳에서는 새움터 회원들이 점심 식사를 함께 한다. 우리는 점심 식사 때 회원 분들을 소개 받았다. 그분들을 '언니',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우리들 어머니 뺀 되시는 '언니들'도 있었다.





기활팀은 모두 7명으로 공동 식사 준비팀, 공부방팀, 여성 센터팀으로 나뉘었다. 여성센터팀은 공동 작업장인 꽃가게에 가서 언니들의 종이꽃 만드는 일을 거들었다. 그곳에서는 종이꽃뿐만 아니라 향기 나는 주머니와 열쇠고리, 핸드폰 줄, 각종 벽걸이 장식 등도 만들어 낸다. 회원들 모두가 꽃가게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직업 교육을 받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회원들이 함께 일하는 곳은 꽃가게가 유일하다. 꽃가게 바로 옆에는 지역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이 있다. 예전에는 놀이방도 겸했었지만 지금은 여력이 안돼 초등학생들만 받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묵묵히 일만 열심히 하다가 이윽고 언니들끼리 이야기꽃이 피고 나니 우리도 슬그머니 끼어들 수 있었다.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무뚝뚝한 분이더라도 타인에 대한 경계가 별로 없고 불임성이 매우 좋은 언니들도 있어서 차츰 마음이 놓였다. 기활 도중 언니들과 만나면서 여러 번 놀라게 된다. 우선 사전에 공부한 배경지식들이 언니들의 환한 웃음, 발랄함과 일치하지 않는데서 놀라고, 언니들의 밝은 표정이 팔에 난 상처들, 가끔 웃으며 이야기하는 '알고 보면 무거운 내용'과 대조적이라서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마지막으로 언니들의 자활 의지와 공동 작업장에 대한 애정을 알게 되면...그야말로 놀랍다.

언니들과 일을 계속 하고 있을 때 마치 입을 열면 영어가 나올 것 같은 거의 완전한 흑인 소녀가 찾아왔다. 워낙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사회인지라 혼혈인들은 대개 기지촌 안에서만 살게 된다고 했다. 한국에 남아 있는 혼혈인들은 많은 차별을 감내해야 한다. 학교도 도중에 그만 두는 비율이 높고 안정된 직장을 갖기가 어렵다. 가수나 모델이 되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일용직 노동자가 되거나, 운 나쁘면 어머니의 전철을 밟게 되는 수도 있다고 한다. 이들을 무조건 미국에 보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 새우터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한국 사회가 쉽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고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감안한다면 그들을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다른 단체들의 생각이다.

물론 한국어를 구사하기 전에는 혼혈인인지 알 수 없다. 길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의 태반은 백인, 흑인, 동남아인 등이기 때문이다. 그 곳에는 한국인들과 미군들은 물론 미군들을 상대하는 러시아, 필리핀 여성들, 이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동남아인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대낮의 동두천 특수 관광지구는 매우 평온하기 이를 데 없다. 가끔 안내하는 실무자 분이 어느 골목을 가리키며, "저기서 윤금이씨가 돌아가셨구요, 여기서 신차금씨가 돌아가셨어요."라고 말하지만 와닿지는 않았다. 셔터가 내려진 클럽가에 이따금 아기를 안은 아주머니나 수업이 끝난 여고생들이 지나간다. 필리핀인 여성들이 삼삼오오

거리를 거닐거나 늘씬한 백인 여성이 생전 처음 듣는 말(러시아어)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이제 기지촌으로 흘러드는 한국인 여성들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그 자리를 필리핀인, 러시아인들이 메우고 있다. 업주들도 외국인 여성들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한다.

"러시아 여자들은 왜 그리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필리핀 애들 도대체 왜 그러냐?"

언니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들에 대한 감정이 그리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 한국인 여성들의 연령이 가장 높다. '기지촌에 들어오게 되는 동기는 다양하다. 정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돈벌이가 되는 일을 찾아 왔다가 빚지고 클럽에 잡혀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매매춘 지역을 전전하다 미국으로 갈 희망을 가지고 온 경우도 있다. 동기야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미군과 결혼해 미국으로 가서 익명의 사람들 속에서 과거를 지우고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미군이 약속을 잘 지켜 결혼하는 경우도 드물고, 운 좋게 미국으로 간다고 해도 상당수의 미군들이 약물중독자이거나 본국에서 무능력자였던 경우가 많으며 문화적인 장벽도 만만치 않다. 그리하여 별다른 기술도 없고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대다수 여성들은 남편의 학대를 못 이기거나 현지 적응에 실패하고 도로 기지촌으로 돌아오기 일쑤다. 결혼 생활에 실패하거나 혼혈아를 둔 여성들은 미국에 대한 꿈을 버리고 다시 클럽에 나가거나 미군과 계약동거를 하기도 한다. 한편 이들이 나이를 먹으면 클럽에서 놓아주는데 그 뒤로는 따로 방을 얻어 미군을 받아들이게 된다. 나이가 더 들면 클럽에서 웨이트리스를 하고, 이마저도 하기 힘들면 미군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는 '히뿌리' 생활을 하거나 꽃이나 인형을 팔러 거리를 돌아다니게 된다.

그래도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왜 그러한 지역에서 나오지 못하고 공장 같은 데 취직할 수 없는지... 언니들은 사회 생활의 경험이 거의 없던 상태에서 기지촌으로 온 경우가 태반이다. 또한 이들은 예민하게 은행 직원의 말투에서 판공서 공무원의 눈길에서 자신들에게 찍혀 있는 사회적 낙인을 감지해 낸다. 동네 미용실에서 다른 사람의 두 배나 되는 요금을 물더라도 아무 소리 못 하기도 한다. 이러다 보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기지촌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기도 하는데 마치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볼 것 같아서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전철 타는 법을 모르는 나이든 언니도 있을 정도다. 거기에 혼혈 자녀가 있다면 더욱 떠나기 어렵게 된다. 생각해 보자. 자신이 평생 다니던 직장,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 일을 쉽게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는 담배를 끊는 일조차 쉽지가 않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그런데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좋아서' 그냥 있는 것'이라 일축하는 태도는 얼마나 모순적인가? 더구나 매매춘은 그 구조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어 있다. 대체로 업소들은 '숙





식 제공'이라는 문구로 여성들을 끌어들이는데 식사, 가구, 방, 옷가지까지 모두가 빛이 된다. 또 포주에게로 생활비로 돈이 나감으로써 빛이 더 커지기도 한다. 여기서 진빛은 매매춘 자체가 불법이므로 값을 의무가 전혀 없지만, 다른 사람과 연대 보증을 세우게 함으로써 결국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 그 곳에 붙잡혀 있게 된다.

기활 대원들은 낮에는 꽃가게나 공부방,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비디오 자료나 문건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다.

세미나 도중에 미처 물었던 그 지역이나 회원들의 사정을 듣기도 하였다. 기활은 농활, 환활과는 달리 몸이 그다지 고달프지 않다. 오후 6시에 작업이 끝나고 식사와 세미나와 평가가 대개는 11시경까지 다 끝나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아침 10시에 가게와 공부방 문을 열면 되기 때문에 8시 넘도록 늦잠을 잘 수도 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밝았다. 그 동안 언니들은 학생들에게 무척 잘 해 주었다. 어쩌다 이야기 도중, 학생이 '만두 생각이 난다'라고 하면 만두와 쥬스 등을 사다주기도 하였다.

마지막 점심 식사 때 현지 출신 실무자인 언니가 우리를 방으로 부르셨다. "우리 가게를 거치지 않고 나간 사람은 곧 포기하고 돌아오더라도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건 다시 생각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는 앞으로 어떻게든 지켜나갈 거라고 하셨다. 그리고 '숙희 언니' 이야기도 하셨다. 필자는 그때까지도 언니들 대화 중간 중간에 등장한 '숙희 언니'가 누군지 몰랐었다. '숙희 언니'는 바로 작년 9월 의문사한 채로 발견되었던 이정숙씨를 일컫는다. 이정숙씨는 꽃가게가 생긴 초기부터 일했던 회원으로 가게에 대한 애정이 상당했었다고 한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내 평생 이렇게 인간답게 살아 보기는 처음이다.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도 실무자들은 당시 유력한 살해 용의자였던 동거 미군을 클럽가에서 본단다. 한국 경찰이 주한 미군 범죄에 손을 못 대는 것이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기지촌 여성이었을 경우에는 눈에 띄게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또 지역 주민이나 외부인들도 '그런데서 일하는 그런 여자니까...'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민족 문제 뿐만이 아니라 남녀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이중적 성윤리 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흔히 기지촌은 한국 사회의 모든 모순들이 응축된 곳이라고 한다. 우선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비롯된 민족 모순이 걸려 있고, 그녀들을 매매춘으로 내몰게 했던 계급 모순과 성 모순이 얹혀 있다. 그러나 우리는-학생으로서 감상적으로 내뱉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느낄 수 있었다. 그분들의 가능성을. 마지막 날 한 남미인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오셔서 주르륵 눈물을 흘리셨는데 주변에 있던 언니들이 달래면서 말한다. "하긴 남의 나라까지 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니. 외

국인들도 참 안됐어."

언니들은 어쩌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여성간 연대와 우정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자긍심을 찾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쓰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도 50년만의 침묵을 깨셨듯이 언니들도 머지 않아 그러하리라고. 언니들은 누군가의 기대처럼 혁명적인 것도 아니고 이론적 배경 지식에 걸맞게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언니들의 첫 인상은 순진하고 씩씩하다는 것이다. 언니들은 학생들을 만나며 스스로가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며, 일을 함께 하며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 스스로 종이꽃을 판매하기 위해 서울로 가기도 하고 이제 남학생들이 와도 잘 해주는 여유도 생겼다.

미군 월급날이라는 마지막 밤, 그 지역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휘황찬란한 거리, 거리에 넘쳐나는 미군들, 곳곳에서 들리는 영어, 러시아어, 몸집보다 큰 인형 꾸러미를 걸어진 꽃과는 할머니들...다음날 아침 그 전날 밤에 본 것이 마치 환상인 것만 같은 그런 이상야릇한 기분으로 우리는 동두천을 뒤로했다. 그곳엔 외국인 여성을 싣값에 내놓으려면 집대부 비자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 포주 출신 도의원이 있고, 죽어도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경찰이 있고,





지리한 난담

의약분업과 의대 사회의 일상 문화 말하기?!

등장인물) 촛불잡이(게릴라2000¹²⁾)

글래씨(구 정책2팀)

아부리(중앙정책국)

위카의 모찌, 자야, 레드

모두들 시간 맞춰 왔건만 글래씨 혼자 늦도록 오지 않음. 그 동안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인사를 나누거나 불필요하게 서로를 띄워주고 아부하며 시간을 보냄. 글래씨 드디어 등장.

모찌: 늦었으니 복도에 서라!(열나 무서웠음)

글래씨: 정책팀 댈날 배만 짜다가 이제 완전히 나왔어요.

아부리: 그렇담 끌어들이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데, 생각 있는 소수라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줘야 하죠. 요샌 의협 개혁 이야기가 나오며 학생이 회원으로 의협에 들어가 윤리위원회나 사회봉사참여를 의협 이름으로 지원받으며 일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인재 학생도 걸맞는 조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레드: 그래도 의사 사회가 단일한 깃발 아래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한계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의대처럼 수동적이면 어느 정도 동일성으로 묶어주는

¹²⁾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이 만드는 아웃사이더를 위한 의료, 사회, 문화 웹진으로 매월 1일 발행되며 게릴라 회원의 프로필을 볼 수 있으며 의료 문제 관련 토론장이 마련되어 있다.
주소는 <http://gue2000.hihome.com>

것이 필요하지만, 학생 사회 모습을 보자면 모든 게 다수에 의한 대표성을 띠어야 해요. 저희가 힘들었는데...

아부리: 위카가 힘들었어요?

레드: 예. 이번 사태에서 말고, 의대 사회 내에서, 물론 저희들의 생각에 적대적인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전체 여학생을 대표하지 않는 일반 여학우들이 그렇게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느냐는 식의 공격들이요. 사업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 주위에선 "너네는 인준받지 않았잖아" 그러고, 이번에도 의사들이 인의협과 시민단체를 적대시하며 누가 그들에게 권리를 주었느냐며 머리수를 문제 삼는 것이에요. 의대의 미신인 듯.

촛불잡이: 소수 집단의 의사표현 방식엔 기본적으로 두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에서 소수 의견을 흡수하도록 하는 것과, 소수끼리 소수의 가치만으로 중앙에 대항하는 것이겠죠. 자신이 소수 입장이면 이 사태에서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 고민했겠죠. 정책팀에 들어가서 일하거나, 희망 연대 등을 꾸리는 두 가지 길이요. 둘 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레드: 기존의 조직이 말이 안되게 폐쇄적이더라도, 대표성이 허구적이고 한계가 많아도, 역으로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촛불잡이: 만일 기존 조직이 폭력적이거나 독자적 행동을 하는 외부 조직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집단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 공동체 구성원이 타자를 배제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요. 희망연대가 생긴 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독자적 행동을 인정하지 않은 의사 집단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요? 이상적으로는 중앙이 개방화되어 그런 소수를 포용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행동과 생각을 인정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레드: 중앙의 묶은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소수집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고민하는 것... 서로 변하는 거죠.

모찌: 어제 브리핑에서 잠깐 나온 말 중에 학생들이 전공의 개원의들의 파업에 학생들이 끌려갔었다, 의사들 집단 행동의 순수성을 대변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식의 판단이 있었어요. 정책 2팀이 의대생 문화, 전체주의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있지만 집회 문화 이런 것에 대한 반성 비판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학생들의 집단주의가 요새 더 심화된 것 같아요. 특히 집회문화, 정책2팀이 생산하는 것들이 학생들 현재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촛불잡이: 저도 비슷. 정책 2팀에서 만든 내용이 아직까지 토론이 잘 되지 않았어요. 집회문화 말씀하셨는데 투쟁의지가 떨어지고 지리하고 길어진 다 생각되다 보니 그런 의식이 그런 문화의 강화를 더 부추기는 분위기로 만들고 있지 않나... 정책 2팀 내용이 논의 됐으면 해요. 빨리





변하기는 힘들어도 노력을 해야하지 않나요.

레드: 1차과업때 안티 그룹서 따까리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보를 붙이면 이미 겪은 거지만, 항상 자보가 뜰거 있고, 4학년 교실에 유인물 들고 가면 선배가 "좋은 말 할 때 갖고 나가라"거나 "이거 모아 다 태우자",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말을 못했어요. 사람들 자극하면 안 되니까. 게릴라 2000이 패널리 이야기를 한 것을 보고 시원했어요. 반면 정책 2팀은 그런 부분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춧불잡이: 맞죠. 대중성 고려하느냐 하지 않느냐 차이인데, 대중들 즉자적 생각을 염두에 두며 나가야 하니까 정책2팀은 증상에 속해 있기도 해서 부자유스러운 반면 게릴라2000은 그런 측면에서는 자유로우니 할말은 다 하는 거죠. 요새 우리도 대중성에 관해 고민해요.

레드: 자보 이야기한 김에... 다른 사람과 말하는 방법을 의대사람들이 많이 모른다는 생각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글래썸: 의대 사람들의 개개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회의적이에요. 몇 년씩이나 이런 문화에 젖어왔었고 앞으로도 이 속에서 의사가 될 사람들인데, 또 자기 반성이라는 것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런 게 있구나' 해 주면서 움직이죠. 의지가 있느냐는 의심이 들고.

모찌: 이번 사태에서 학생들의 방향도 많이 바뀌었잖아요...그건 참 다행이라도 아직 의심이 되는 것이 이제껏 비판하는 목소리를 물었다가 그것을 껴안고 가면서도 그전 행위에 대해 반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온 추가 요구안들도... 비판에 의해 나온 거잖아요.

춧불잡이: 나중에 나온 슬로건들이 위장전술인지 참뜻인지...그래도 바꾸어볼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요? 즉자적인 생각에서 대자적 존재로 전환하는 기로...

모찌: 얼마나...100분 토론서 주수호씨가 국민이 이해 못해서, 이미 의사의 개혁 의지가 완전무결하게 요구안에 있는데도, 추가 요구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요?

레드: 진정한 껴안기라면 이전에 문제제기한 그룹도 왕따가 아니어야 하고, 의료의 실질적 주체는 민중인데, 건강권에 정말 관심있었음 싸움이 의사, 정부간의 줄다리기로 흘렀을까요?

춧불잡이: 이번 판이 약사법 재개정으로 시작한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일상에 돌아가면 할 수 없는 고민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가능성일 수도 있어요.

레드: 다만 의사들이 꼭 반동적인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죠. 의사가 노동자 민중일 수는 없는 거지만 아예데 정권을 무너뜨린 칠레 의사와 같은 집단이 되게 될 수 있잖아요.

모찌: 자야 이야기 좀!

레드: 자야는 전에 그런데 불만 많았잖아요. 보건의료 노조 성명서를 무시하고 국민이나 시민단체 얘기는 비전문가의 이야기로 일축했던 모습이요.

자야:(잠에서 깨어나)그거 내 이야기 맞아?

레드: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자야: (졸린 눈을 비비며- '또 자냐? 그만 좀 자야!')같이 텔레파시로 했나 봐.

모찌:(춧불잡이를 돌아보며) 그때 브리핑할 때...신자유주의 이야기하고...

춧불잡이: 신자유주의?

모찌: 아 신자유주의(레드를 개패듯 때려)

레드:(퍽퍽 비명을 지름) 왜 때려요. 모찌!

모찌: 지금 구도를 '의료사회주의 대 자본주의'가 아닌 '전문주의 대 반전문주의'로 봤었죠?

춧불잡이: 전문주의의 개념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인데..

모찌: 폐쇄적이잖아요. 국민과 같이 가야하는데도 처음에 동떨어진 상태로 간 이유도...나는 전문가요 저사람은 비전문가라는 식의 전문주의 때문이었잖아요.

(모찌와 춧불잡이, 이어 짧지 않은 분량의 울더 레코드-독자 여러분 궁금하죠?)

모찌: 왜 의료자본주의 대 의료 사회주의 구도가 탈피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다수 의사가 싸우는 이유도 생존권적 욕구고 소비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또 다른 축인데.

춧불잡이: 약사법 개정... 경제적 이해관계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의사의 자존심 문제거든요. 사회 속에서 조화될 수 있고 배타적이지 않는 전문직...이런 것으로 나아가야지 않나 해요.

(모찌, 춧불잡이, 그뒤로 한참 울더 레코드-진짜 궁금하겠지만 죄송 ^^)

레드: 현 시점에서 의료 자본주의/사회주의 구도는 위험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도 사회주의는 의사 사이에서 심지어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때도할 수 있는 수단이고요.

춧불잡이: 게릴라 2000에서도 의사 내의 레드 콤플렉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의 개념으로 정확히 쓰인다면 좋으나 레드 콤플렉스 때문에 왜곡되어 침부터 의료사회주의라는 개념은 상당히 불리할 수





밖에 없죠.

레드: 많은 의대생이 김대중 정권의 의료정책을 사회주의적이라고 오해하고 그러니까요.

쫓불잡이:(오바하며) 그러니까요. 그런 지점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또 한참 울 더 레코드-아, 비밀이 많은 인간이여!)

야부리: 참 이제 의학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있을 거예요. 연구 많이 되어 있어요. 교수 연구소들 안에서 이미 있던 흐름이죠. 그런 조건으로 전체 바탕이 바뀌고 있어요.

레드: 하지만 누구의 연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스¹³⁾의 모형이 말씀하기를 무슨 무슨 교수방법이 좋다더라는 식의 개입도 있지만 의대 교육이 의대사회의 구조를 어떻게 재생산하고 있고, 병원에서의 위계적 관계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더라구요.

야부리: 그 모군의 말처럼 어떤 제도로 교육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사가 만들어져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학생들 수동적인 측면...목적이 분명하면 관계개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학생이 먼저 나가야 하고 바뀌기를 기대할 수만은 없죠.

(글래씨와 야부리, 엄청 많은 분량의 울 더 레코드)

모찌: 울 더 레코드가 너무 많잖아?

(야부리는 계속...여지껏 최대 분량의 울 더 레코드-합치면 50분 분량은 족히 되리라.)

레드: 야부리형이 날적이에 쓰신 의대의 교육 문제... 예로, 족보만 판다. 갈친 것도 갈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앞으로 의대 사회 이야기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모찌: 수업 들을 때 혹 짜증날 때 없어요?

쫓불잡이: 수업들어? 난 안 듣는데

글래씨: 이것도 울 더 레코드?

모찌: 아니 이젠 온 더 레코드

레드: 수업을 정말 안 들으셨나?

모찌: 원래 수업 거부?

13) 기존 교육을 분석, 비판하며 대안교육을 연구, 만들어가려는 연세 의대 내의 교육 운동 모임 주소는 <http://www.cafe.daum.net/maess/>

쫓불잡이: (어쩔 줄 몰라함) 그런 고민을 해요. 개인적으로 의대 교육 자체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학 자체에 적성이 없어 안 듣게 되는 것인가.

레드: 와, 나랑 비슷하다.

모찌: 공부는?

쫓불잡이:(금적거리며) 족보.

모찌: 자야는?

자야:(드디어 잠이 다 깨다) 시험을 너무 많이 봐. 그래서 천천히 공부하며 오래 생각하고 싶은데도, 단순한 질병 이름 기전이나 외우고, 과목 하나 혹은 의학 전반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수업 중에 하는 것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여유 역시 없잖아요.

레드: 역시 에이스는 다른 것 같아.

쫓불잡이: 우린 마구리아.

레드: 교육개혁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하셨죠?

야부리: 만드는 중이에요.

모찌: 생각있는 교수들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난 그게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야부리: 그게 가장 효과적이란 거지요.

레드: 교육 개혁에서 저항세력이 교수라? 요전에 매스의 모형이 토익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하러 교수님 찾아가는데 엄청 겁먹어요. 팔리면 어떡하나, 밋보이면 어쩌나...하더라니까요.

모찌: 의대 안의 남녀 관계나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어떠해요?

쫓불잡이: 남녀관계요?

모찌: 연애 관계가 아니라, 이상하게 생각한 적 있나요? 외국에서는 완전 평등은 아니어도 대놓고 뽀소린 안하는데, 의대 내에서 교수들이 말하길 "여자들이 말이 지, 어찌구 저찌구..." 혹은 "여학생이 자꾸 늘어나다니 우리 나라가 공산주의화되어 가나 보다"하신 적도 있고.

쫓불잡이: 그런 문제라? 그 수업 들었어요. 소아과 수업. 공산주의라는 말을 레드 킴플렉스 측면에서 접근했죠. 그런 쪽에서 충격을 받았지, 여성 문제로는 접근 안 했어요.

레드: 전 모찌 얘기 듣고 '그래, 여학생들 늘어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구나. 만세!' 했죠.





모찌: 수업을 얼마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수님들은 "소아들의 정신질환이 늘어가는 이유 중에 엄마들이 직장을 가지고 애들 제대로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앉아있는 의대 여자애들처럼 공부만 하는 여자들 때문이다." 그래요.

레드: 교육에 대해 관심갖는 사람은 에이스로서 마구리로서 이런 두 부류가 있는 듯 한데, 자야의 고민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졸다가 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예요. 여성을 비하하고, 여학생의 존재를 무시하는가 하면, 꼭 예를 들더라도 "여러분이 길가다 예쁜 여학생을 봤다고 합시다." 이런 식이죠. 마치 남학생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쫓불잠이: 의사는 남성 중심적 직업이죠. 티오도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대개 과는 여의사 좋아하지 않는데다 불평등한 이데올로기가 불평등한 제도에 의해 확산 심화되지 않나 하는데 남녀 불평등은 사회 시스템 전체의 일반적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예요.

모찌: 시스템의 문제나 편견들이 의대 사회 내에서 반영되기도 하지만 의대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미국에는 교수들에게 지침서가 내려온대요. 'Do's and Don't's.' 그 중에 어떤 식의 말을 여학생들에게 하지 말고 여학생들의 대답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며 이리저리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

쫓불잠이: 의대 사회 안에서 불평등 의식을 사회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다만 사회 평균적인 정도라도 이끄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예요.

레드: 저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질서 자체가 남성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군대와 비교도 가능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위계가 분명할수록 성장하면서 조직을 경험하지 못한 여학생들에게는 그것이 본질적이지 않더라도 여성적 문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외과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적으로도 힘들겠지만- 하지만 명절 때 어머니들 일하는 것 보세요.- 조직 문화에 적용하지 못하는데 있지 않나... 의대 여학생들도 남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하고 간호대생에 대한 우월감도 있고요. 왜냐면 난 남자들이 하는 것 한다. 뭐 이런 거지요. 여선생님에게도 기대 못하고, 여학생도 명예남성인지라 여성비하 발언에서 똑같이 웃어요.

쫓불잠이: 의사 간호사 관계서도 의사가 남성적, 간호사 여성이라는 편견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레드: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 모순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은 아니죠.

쫓불잠이: 네, 아니죠. 그런 것을 찾아내기로 합시다.(순간 엄숙) 어? 사회자도 아닌데?

레드: 사회자 없어요. 좋은데요. '합시다', '하자'... 대학 오면 최소한 너라는 말을 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자네라는 말보다 '야', '너'를 더 쓰고, '합시다' '하자'가 아니라 해라! 거든요.

쫓불잠이: 친근하려는 시도가 권위적으로 귀결되면 문제가 있겠죠. 담임반 선생님도 야야 해도 권위적인 분은 아닌데, 제가 위계질서나 권위주의를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한국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 해서 그런지, 습관에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면 문제 있겠지만.

레드: 그 경우는 모르겠지만 모 선생님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야, '너 건방지게 하 품했어' '너, 조는 애 나가라' 극단적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쫓불잠이: ***선생님?

레드: 만일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아꼈해져요. 예전에 제가 수집한 어떤 의대 내 성폭력 사례에서 동 학년이 가해자인 경우였는데도 피해자가 겁을 엄청 먹었어요. "그러다 남자 선배들에게 찍히면 큰일이고 앞으로 병원 가서도 두 고두고 찍히는 거야." 그래요.

(글래씨 나갔다 들어옴)

글래씨: 여지껏 무슨 이야기했지?

쫓불잠이: 남성 중심의 문화죠. 의대 안에서.

글래씨: 당사자가 아님 이해하기 힘든 문제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문제 당사자인 여학생들이 서로를 적대하는 것이고, 의대 밖 사회로 확장 안 시키더라도 초기에 남자가 많아 시작했던 모든 체계와 조직과 남성중심의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라, 너네 적응해봐라 이런 식인 거고. 뭔가 큰 수정을 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모찌: 그런데 그러한 의식조차 없다는 것은 정말 문제죠. 문제제기도 안 되고.

글래씨: 전문직 여성의 문제는 자기가 살아나오면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대개는 무관심해서 하는 사람만 하고 그런 식으로 살다보면 무관심한 사람만이 살아남고, 땀 흘리다가... 방황하다보면...

모찌: '우리는 어디가나?' 고민하지.

쫓불잠이: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 아~! 그러면 나도 어디까지? 어어?

글래씨: 교육 문제도 고민하다 보면 졸업하고 엘리트적으로 살던 사람이 끝내 잘 살게 되고 어떤 때는 도대체 뭐 하려는 것인가, 회의도 들어요.





레드: 어떤 때는 남 좋은 일...

글래씨: 과연 남은 좋아하기라도 할까? (침묵) 어떤 거나 마찬가지로 여성 문제를 말하는 사람, 또 그런 불만을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초기에는 안 좋은 반응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힘 빠질 필요는 없어요.

야부리: 모르겠어요. 남자랑 여자랑 같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같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모찌: 같은데 차별을 당하니까 문제인 거죠.

레드: 인간으로서 욕구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같지만 조심스러워져요. 인간으로서라는 말속에서도 인간의 표준이 남성이라는 전제가 들어 있으니, 우리나라 생물책에서 인간이라 하면 주로 남성이 그려져 있고 원서는 여성도 절반이라 놀랐어요.

야부리: 내 말은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것이고요. 남녀의 의사상이 다른지? 오늘 예방의학 교실에 가서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며 "의사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했더니 선생님께서 "여자들 다 의사될 거 아니잖는가? 여자들 안 하는 수 많다. 그건 면허 딴 사람들 그대로 반영한 거다." 울적했는데 남자한테 들은 말이니, 김성주씨 말씀이 여자들 변해야 한다. 그러시고, 과연 여자들 생각이 다른지? 아님 스스로 생각이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레드: 전 좋은 과 가서 돈 잘 벌고 출세하자가 목표였지만 조건은 안 좋고, 여학생들끼리 경쟁하고 그런 거 전 포기했지만, 아버지가 기초를 권하세요. 머리 쓰기 싫은데 "여의사는 의사와 결혼할 수밖에 없다. 부인이 돈을 더 벌거나 지위가 높으면 남자의 본성을 억압하는 거니 기초로 가라. 혹은 여자들이 공부 암전히 잘 하니까"라는 거죠. 고정된 성역할이 존재하고 좋은 병원에서 수련할 수도 없어 그러지. 기대치가 다르게 들어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찌:(웃음)바라보며)어떤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

웃음: 제 이야기가 아닌데? 하지만 전문직이라는 틀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직이라는 것은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돈 이상의,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의사가 되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은지.

야부리: 초기에 애랑 싸웠죠. 이제 의사집단이 개혁도 하고 내부 자정을 하려면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하지 않나요? 어떤 적합한 권리를, 폐쇄된 상태에서 횡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패널리티는 있어야. 자정도 강제성이 없이 되리라 생각지는...

레드: 강제권이 공익에 반한 의사를 직접 단죄하고 공공을 위한 의사로 거듭나기

위한 행위라면... 그러나 타자를 왕따시키는 패널리티는 문제죠. 학생 사회서 보였던 모습들처럼, 적잖은 학생이 진정 신념이 있어 따라갔다가보다 적당히 뒤처지지 않으려 하며 따라가지 않은 사람을 왕따시키며 안정을 느낀 거죠. 야부리의 그런 패널리티에 대해선 아무도 안티 안 걸어요.

웃음: 저도요! 안티 안 걸어요.

모찌: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고 끝내기로 합시다.. 오늘 자기의 결론을 내봅시다.

웃음: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고...

레드: 왜 그런 교과서적인...

모찌: 그런 거 말고...

웃음: 여성을 배제시키는 남성중심의 의사집단 문화는 제가 무심코 지나갔던 부분이었 고요. 타자를 배제하니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부리: 계속 횡설수설.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 많이 배워가요.

글래씨: 늦게 와 죄송. 누가 불평등을 말할 때 왜 그런지를 알려내는 노력은 둘째 치고라도 그게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식하려는 노력, 고민과 활동은 중요한 것. 자야:(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초대에 응해 주셔서 모두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하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텔레파시를 서로에게 보내며 열심히 잘 활동합시다.

레드: 못한 이야기 많은데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문제나 족보 어찌 볼 것인가, 대형 강의실도, 집단주의적 문화, 기타 등등을 말하고 싶었지만.

모찌: 나중에 소식지 잘 읽어주세요.

웃음: 끝으로 한마디 더하자면! 위카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많은 기대합니다.

모찌: 끝 끄읏!





영화이야기- 아이즈 와이드 샷

눈을 크게 뜨고 봐!

Mozzi

누군가가 가족이라는 제도를 없애는 것이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했다. 그 말에 충분히 동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가족이라는 것이 비록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실존적 회의, 의심마저 불러일으키지만 오히려 그런 유명화된 실존적 근거로 인해 많은 혁명가들에게 자본이라든가 전체주의적 국가권력 같은 집중적인 타겟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영화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은 눈부시게 반짝이는 불빛을 배경으로 엘리스(니콜 키드먼 분)가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환갑은 훨씬 넘어보이는 해군 장교와 춤을 추기 시작할 때부터이다. 끊임없이 남편의 동향을 주시하는 품이 글세, 그녀의 욕망의 끝은 앞에서 그녀를 막 잡아먹을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 빌(톰 크루즈 분) 주위에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그렇지! 이건 순 남자의, 남자를 위한, 남자에 의한 영화 아냐?

의사라는 고상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토끼같은 자식과 그런 자식의 공부를 봐주고 있을 때조차도

남편에게 자극적인 눈빛을 보내는 것을 잊지 않는 섹시한 아내. 이것이야말로 현대 중산층 사내들의 유토피아가 아닌가. 그런 아내가 비록 한번쯤 젊은 해군 장교에게 한눈을 팔긴 했지만(그렇다고 정말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다!) 그건 오히려 빌의 욕망의 방향을 가증스럽게도 정당화(?)시켜주고 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한번쯤 한눈 안 팔아보는 사람이 어디있어. 물질적인 조건이 아무리 완벽하다하더라도 의식의 배반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 하지만 그 의식의 탈주 역시 자신의 물질적 기반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

다.

우선 빌의 방향은 역시 돈으로 쉽게 살 수 있는 거리의 여자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고압제도 엘리스의 전화로 인해 HIV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싸구려 섹스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회원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거물급들의 섹스 파티는 어떤가. 이것도 도덕적으로 난잡하기 이를데 없고 위험하다. 물론 이 난교파티도 남성들의 환상의 산물임에는 틀림없다. 가면을 쓴 매춘부들은 비교(秘敎)의 의식으로 정화되는 과정을 밟은 후 한명씩 남자들에게 반겨진다. 이들은 철저히 그들의 관음증과 물건(penis)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여기서도 도덕적인(!) 빌은 언젠가 도움을 주었던 매춘부의 '은혜갚기'에 의해 살아난다. 결국 빌의 욕망의 가면은 HIV에서 안전하고 도덕적으로도 꿀릴게 없는 아내 앞에서 양전하게 뒤어있었다. 도대체 그 많은 방향이 무의미했다는 듯이.

이 거장의 유작은 완벽하다 할 수 있는 중산층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배반, 엘리스의 성적 백일몽, 빌의 성적 환상, 그 욕망의 잠재적 파괴력이 가정 내에서 어떻게 억압되고 기만되는가를 보여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한 가정 내 부부사이에 그려지는 성적 욕망의 지형도 역시 아무리 거장의 손을 거쳤다고는 하나 불평등하고 그래서 불완전하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스의 황폐화될 위험을 안고 있는 욕망을 빌을 조명하는 데에만 쓰고 있을 뿐 그 자체를 완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다. 결국 빌의 방향의 종결로 그 부부의 관계는 화해로 유지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빌의 에무를 받을 때도 거울에 비치는 자신과 그 남편을 쏘아보는 엘리스의 눈빛에서 중산층 가정의 족쇄에서 몰화되고 만 자아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엘리스의 정신적 방향을 읽을 수 있지 않은가.

러닝 타임이 3시간이 되지만 이 모순투성이의 가족을 담기에는 그 시간도 짧은 듯하다. 결국 엘리스의 멋진 반란은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엘리스 역시 이 가족의 작은 분열의 공범인양 억지부리며 영화는 거울술같은 해피엔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왜 하필 거울술이냐고? "우리는 어찌지?" "우리 지금 당장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어..... FUCK!" 그때 보이지 않는가? 조그마한 불뚱으로도 다시 타오를 수 있는 남편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서 있는 엘리스를.



초판

WICCA

원문이 / 아기거북, 자아

펴낸이 / WICCA

펴낸곳 / 연세대 의대 여성모임 WICCA

주소 / www.daum.net/wicca/

발행날짜 / 2000년 11월 7일

정가 최대한 성의있게.. 마니..

© 연세대 의대 여성모임 WICCA

어떠한 경우든 본 책 내용과 편집 체계의 일부 혹은 전부의 무단 복제 및 표절을 허락, 무단 복제와 표절은 장려됩니다. 단, 출처만 명백히 밝혀주세요.